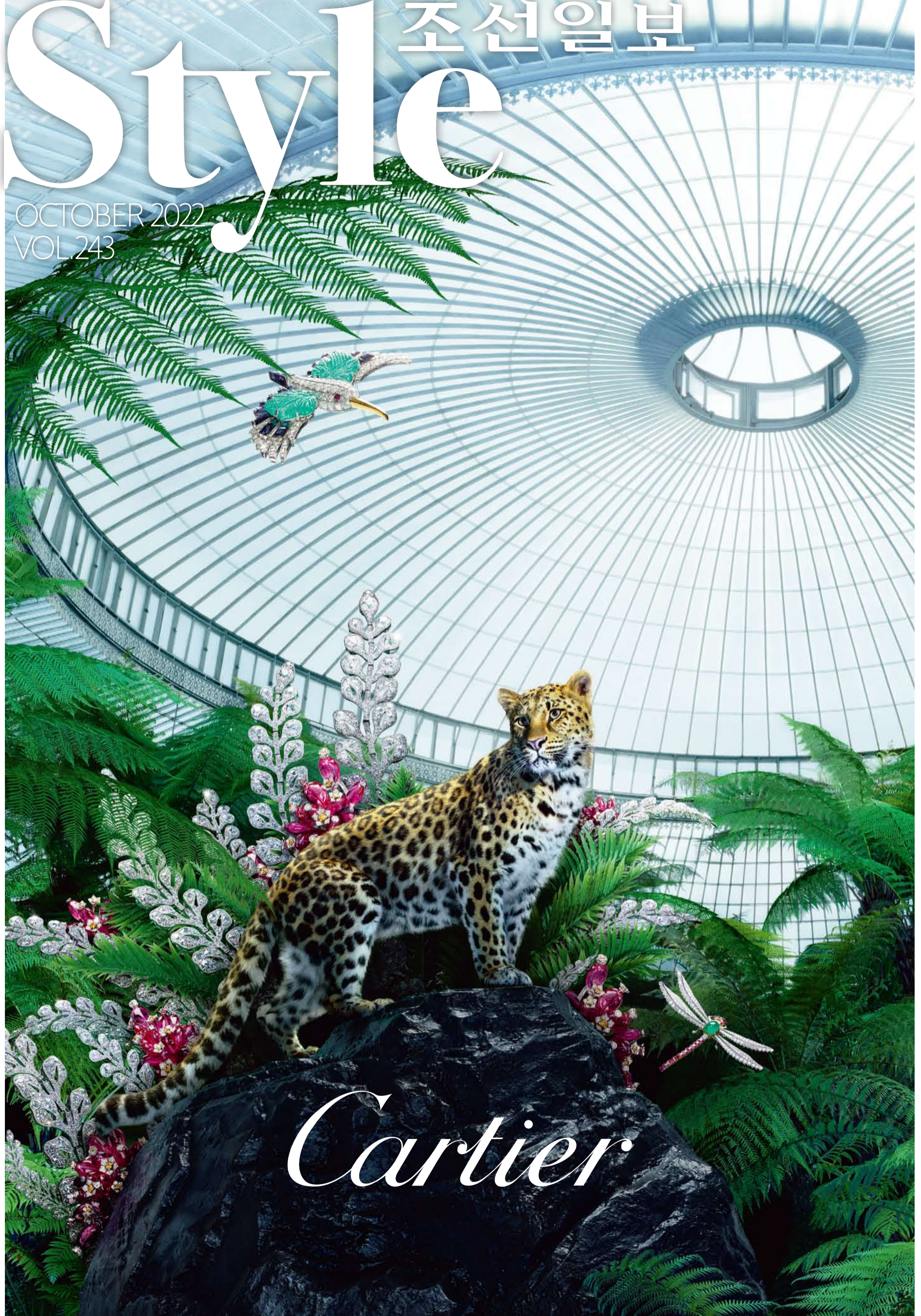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22
VOL. 243



Cartier

Plaid cashmere blanket, woven and dyed by hand.





DIOR

LA D DE DIOR
Stainless steel black ultramatte, black diam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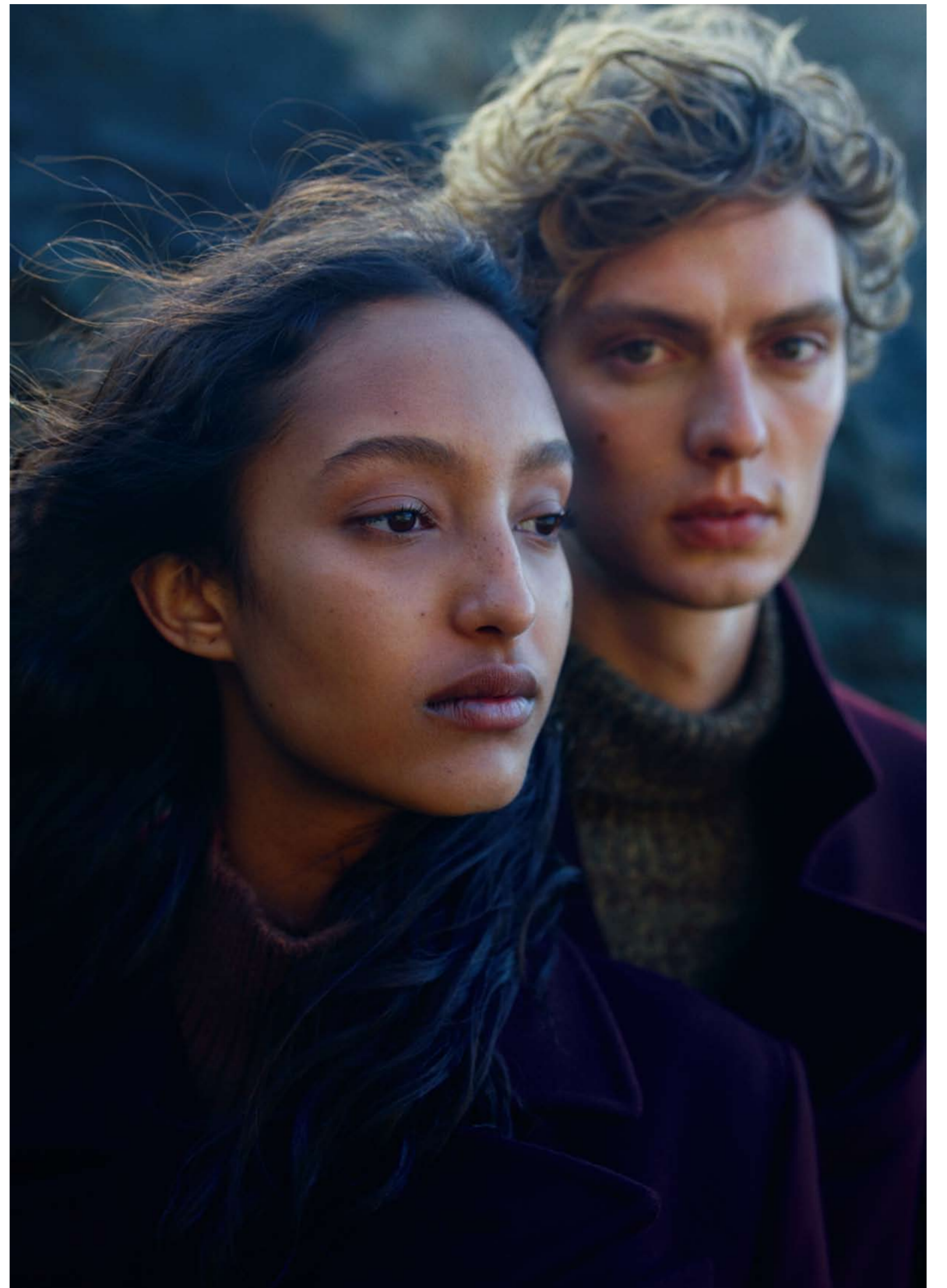


Liens Collection



YOUR STORIES OF LIENS

CHAUMET
PARIS



POIRET





2022년 10월 1일, 카르띠에 메종 창립 15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및, 투명성,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국적 미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세기가 주목하는 크리에이티브의 도시 서울의 창의적 영감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아트와 캠페인 프로젝트가 전개될 예정이다. 문의 1566-7277



28



16

- 20 **물결, 위, 우리** 부산은 1981년 지역 작가들이 뜻을 모아 탄생시킨 부산현대비엔날레를 전신으로 하는, 우리나라 비엔날레 역사에서 '최초이자 자발적'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사실 역사상이나 전통성을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산은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품은 축제의 무대이지만 말이다. 특히 2018년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의 등장을 계기로 점차 부산의 원도심 일대를 탐색할 수 있게 된 미술 산책 동선은 그야말로 '강추할 만하다'. 을숙도, 부산항 제1부두, 초량, 영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2부산비엔날레의 현장을 소개한다.
- 22 **FEEL WITH ALL YOUR SENSES!** 프랑스 출신으로 드물게 영국의 권위 있는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을 받은 로르 프루보(Laure Prouvost)는 비디오, 설치, 조각, 회화 등의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발군의 스토리텔러다. 지난 베니스 비엔날레(2019)에서는 영화보다 더 상상력 넘치는 프랑스 국가관 전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지난 3월,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선보인 국내 첫 개인전(심층 여행사(Deep Travel link.)) 이후 2022부산비엔날레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마치 그녀가 아득한 물의 정령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는 설치 작품과 영상으로 돌아왔다. 사연 인터뷰를 통해 로르 프루보의 독특한 감성과 세계관을 들여다본다.
- 24 **SIMPLE PLEASURE** 여성의 가녀린 목을 더욱 우아하게 장식해주는 펀던트 네크리스.
- 25 **TIME PERFECTION** 정제된 우아함과 강인한 남성미를 겸비한 데일리 하이엔드 워치 컬렉션.
- 26 **THE NEW LANDMARK** 오랜 역사와 새로운 문화가 하나를 이루는 역동적인 도시, 서울. 그중에서도 럭셔리 패션의 흐름을 선도하는 트렌드 격전지인 청담동에 자리한 카르띠에 메종 창립이 10월 1일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드러냈다. 빛과 투명성, 그리고 개방감을 강조한 공간 구성은 누구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28 **HIGH IMPACT** 풍성한 볼륨감, 다양한 소재와 길이의 레이어링, 모든 경계를 허무는 반전의 미학. 2022 F/W 맨즈 룩 컬렉션.
- 36 **COLOR ME** 독특 튀는 색깔로 시선을 끄는 빅 패션 하우스의 2022 F/W 시즌 컬러를 핸드백.
- 37 **WONDER SHOES**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뽀족코가 돌아왔다.
- 38 **NEW LIFE, NEW STYLE**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질릴 틈 없는, 즐길 거리, 볼거리 가득한 복합 문화 공간.
- 40 **BARE ESSENTIALS** 사워 시킨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프리미엄 사워 젤.
- 41 **EXTREME RICH** 피부의 노화 징후를 개선하고 확실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프레스타지 크림.
- 42 **EDITOR'S PICK** 환절기 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한 이달의 뷰티템 13.

FENDI.COM



FENDI

ROMA

Style **조선일보**
Issue.243 October 2022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해 · 재판 리은 인세 | 타라티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미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BACK to PINK

2022년 다시 떠오른 핑크 컬러의 열풍. (위부터 차례대로) 새틴 소재와 크리스탈 버클 포인트로 화려함을 더한 비브 쇼크 스트라스 버클 펌프스 핑크 2색 67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코르도네트 레이스로 독특함을 살린 개성 넘치는 솔더백 1백50만원 **돌체앤가부나**, 문의 02-3442-6888,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알코의 블랙 디테일이 매력적인, 램 스킨과 페이퍼트 컷프 스킨 소재의 슬랑백 슈즈 가격 미정 사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포토그래퍼 **박재홍** 에디터 **성영민** 어시스턴트 **신정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빛나는 피부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도와줄 파운데이션을 찾지 못한 수면 없이이다. 화이트의 파운데이션 탱크 소우는 피부에 무거움 없이 가볍고 부드럽게 밀착되는 실크 플루이드 텍스처가 일품이다. 그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면서도 높은 커버력으로 들뜸이나 갈라짐 없이 잔주름과 모공 등 잡티를 커버해주며 디크닝 없이 오래 지속되는 롱웨어 포몰라를 갖췄다. 사용 전 포몰라가 잘 섞이도록 잘 흔든 후 손가락이나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이용해 한 방울씩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고, 커버를 더해야 할 부위에 레이어링하듯 덧바르면 실크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게 빛나는 깨끗한 베이스킨을 완성해줄 것이다. 30ml 11만2천원, 문의 02-310-5025

INTENSE TIGER

워치메이킹에서도 아티스트들의 창의력과 자유분방함을 중시하는 에르메스 워치팀게 이번 워치에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2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영국 디자이너 존 버튼의 실크 스퀘어 일라스트에서 시작된 협업은 새로 선보이는 아쇼 에르메스 스토리 워치로 이어져 환상적인 동물들에게 주목했다. 12개 한정판으로 선보이며, 그중 첫 번째 버전은 우드 마티트리 기법을 사용해 완성한 호랑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자두나무와 월란 나무 등 다양한 소재의 나무를 사용했으며, 그 주위에 골드 아틀리케로 표현한 나비, 벌새, 기린, 공작새가 자리한다. 이 섬세한 워치는 에르메스 H1912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82개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베젤을 장식해 우아함을 부각한다. 문의 02-542-6622



푸른빛의 전설

"우연을 만나는 기쁨을 절대 잊고 싶지 않아요." 무슈 디올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새로운 주얼리에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노르망디 그랑빌 자택의 바다를 담았다. 이 바다를 바라보면 그는 잠성술에 자연스레 빠져들었고, 이는 로즈 드 방(Rose des Vents) 컬렉션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네크리스, 링, 브레이슬릿은 모두 미묘한 푸른빛을 띠며, 사파이어와 라피스 라줄리, 그리고 중앙에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메달리온이 어쩌면 행운을 가져다줄지도 모를 일이다. 더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로즈 드 방의 새로운 제품을 만나보자. 문의 02-3480-0104



NEW BAGUETTE

팬디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이자 헤리티지를 그대로 담은 바게트 디자인의 뉴 백이 출시된다. 2022 F/W 여성 컬렉션 쇼에서 처음 공개한 FF 테파스트리 소재의 바게트 백이 그 주인공. 벨벳 같은 느낌의 테파스트리 소재는 우아한 무드를 자아내며, 직물이 위치한 방향에 따라 이중 광택을 띠어 아이코닉한 FF 패턴에 고급스러움을 배가한다. 스트랩을 내장해 슬더백이나 핸드백으로도 스타일링할 수 있으며, 아이보리·다크 그레이·다크 네이비 컬러로 출시된다. 3백만원대, 문의 02-514-0652



BRILLIANT LOCK

늘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티파니에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컬렉션 티파니 락(Tiffany Lock)을 출시했다. 티파니의 아이티비에서 가져온 핵심 모티브인 자물쇠를 현대적이고 우아하게 재해석해 탄생한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은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으며, 실용성 역시 높다. 미치 지물쇠처럼 돌려 열고 잠그는 혁신적인 회전 고리로 편안함까지 갖췄다. 그뿐 아니라 심플한 디자인으로 생활에 관계없이 누구나 착용하기 좋다. 티파니의 또 다른 아이코닉 컬렉션의 탄생이 반가운 이유. 문의 02-6250-8620



관능의 절정

끼리끼리에서 브랜드 헤리티지를 잘 표현하는, 팬디를 모티브로 한 짐금장치가 매력적인 뉴 백을 출시한다. 관능적이고 우아한 곡선을 잘 살린 풍성한 볼륨감을 갖춘 세이프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무엇보다 미중의 정인 정신이 녹아든 팬디 모양의 짐금장치가 포인트를 준다. 이 디자인은 하이 주얼리 조각가의 협업으로 탄생했으며, 11개의 가죽 조각으로 장식해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일곱 가지 다채로운 컬러로 출시되어 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문의 1566-7277

LOVE GREEN

보지 못한 해도 싱그러워지는 그린 컬러가 매력적인 말라카이트 원석 주얼리.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디바스 드림** 로즈 골드 메탈라이트 장식과 다이아몬드 피에 세팅으로 아이코닉한 부채꼴의 유려한 곡선을 더욱 우아하게 완성한 팬디트 네크리스 6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파이어 포제션 말라카이트 오픈 링**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포제션 라인의 오픈 링으로 18K 핑크 골드 밴드의 회전 모티브에 총 0.27캐럿, 20개 다이아몬드를 더하고 끝에 2개의 말라카이트 약 0.79캐럿을 세팅한 링 4백44만원, 문의 1669-1874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컬러 링**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베를리 라인의 18K 옐로 골드 링으로, 다이아몬드와 중앙에 말라카이트 원석을 배치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1천만원대, 문의 1877-4128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영민**



LOVE ME TENDER

2004년 처음 공개된 루이비통의 대표 주얼리인 앙프랑드 피인 주얼리 컬렉션에서 올해 다채로운 새로운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인다. 이번에는 생활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크하게 즐길 수 있는 18K 옐로·화이트·핑크 골드 소재에 루이비통만의 트윅크 스타드 디테일을 더한 주얼리로 구성했다. 07에 1896년 조르주 비통(Georges Vuitton)이 디자인했던 경량한 LV 이니셜과 모노그램 플라워 모양으로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았다. 잇달리 계속된 반지와 팔찌는 사랑하는 이와외의 관계를 표현했고, 매종의 전설적인 트윅크를 고장하던 가죽 스트랩에서도 모티브를 얻었다. 상징적인 네 잎 꽃 모양의 모노그램 플라워는 메달리온에 담아내 움직임에 따라 꽃잎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시킨다. 문의 02-3432-1854



REUSE, REDUCE

뷰티 브랜드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리필 제품이나, 종이 용기 등 지속 가능성이 대안 새로운 시도를 진행 중이다. 브랜드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발자국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왼쪽부터) **혹시당 버메나 사일 질 에코 리필** 싱그러운 레몬 향이 가득한 순한 식물성 제품. 건조함 없이 피부를 깨끗하게 세정해준다. 정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86% 절감한 패키지에 담았다. 500ml 3만9천원, 문의 02-2054-0500 **화북 더 스프레이 리필** 인공 향료, 화학성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주 편백 원액 100%를 담아낸 천연 탈취 정화수 공기, 의류, 침구 등 일상 속 곳곳에 사용할 수 있다. 900ml 4만2천원, 문의 070-4184-1005 **딤타크 엑스 폴리머이딩 핸드 워시 리필** 피부를 깔끔하게 세정해주고, 작게 오면 올리브 씨를 함유한 덕에 각질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시트리스 향조를 가미한 상쾌하고 싱그러운 향을 담았다. 350ml 5만4천원, 문의 02-3479-6049 포토그래퍼 **정진영**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신정임**

한국 현대미술과 하이 주얼리



하이 주얼리와 아트의 결합은 늘 싹트는 작업물을 탄생시킨다. 지난 8월 30일 포랑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 프메(Chaumet)가 가나아트(Gana Art)와 협업해 프메 아트 뷰티룸에서 글로벌 아트 페어 카이프(Kiaf) 각국별 리셉션을 진행했다. 글로벌 아트 시장과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한 한국의 역동성을 알리는 카이프 아트 워크에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계를

조영하며 국내 현대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가나아트와 함께한 것. 이들은 가나아트 동맹공동 뷰티룸 자리에 새롭게 오픈하는 판화 공방 'GH 프린트 스튜디오(GH Print Studio)'를 처음 소개하는 기회로, 국내 대표 갤러리 가나아트의 대표 소속 작가인 오수환, 이주경, 에디 강 등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2042년 동안 소개는 다양한 시간으로 여러 시대와 매체를 넘나들며 예술과 아름다움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현대 문화에 대한 다양한 후원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업 역시 그 일환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문의 02-3442-3359

90년대 스타일 (1925~80) 느낌
 L.L. 스카티 77000원
 누에로벤루노 by 한스타입



그라제티 로즈 골드 코인팅이
 라운드 프레임 신디카스
 39000원 40000원 40000원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루비와
 에메랄드 50000원 50000원



청록색의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클러스터로
 디자인된 펜던트. 925
 스텐의 체인. 925 스텐의
 클러스터 펜던트. 925
 스텐의 클러스터 펜던트.



카프 스킨과 트워드 소재에
 메탈 고임 장식을 더한 하이엔드
 가격 미정 사넬.

for her Selection

주말에 가벼운 근교로 향하는 센스 있는 여자의 머스트 해브즈.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태양광 돛 우아하고 젊은 브라운 컬러의
 레더 슬리퍼 샌들 85만원 구찌.



핑크 크리스탈의 반짝임이
 돋보이는 일루미나
 드롭 이어링 17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35000원 35000원 35000원



지름 38mm
 18K 골드 케이스에 기묘세
 장식의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홀로 데이트 워치
 52만원 피아제.



딥 브라운 컬러감이
 고급스러운 트리오페
 틴 배색백.
 18.5X16cm, 가격
 미정 셀린느.

독특한 소재로 가장 있는 욕
 앙헬을 도약할 여자가
 핑크 스킨스기트 브라운 컬러
 40000원 40000원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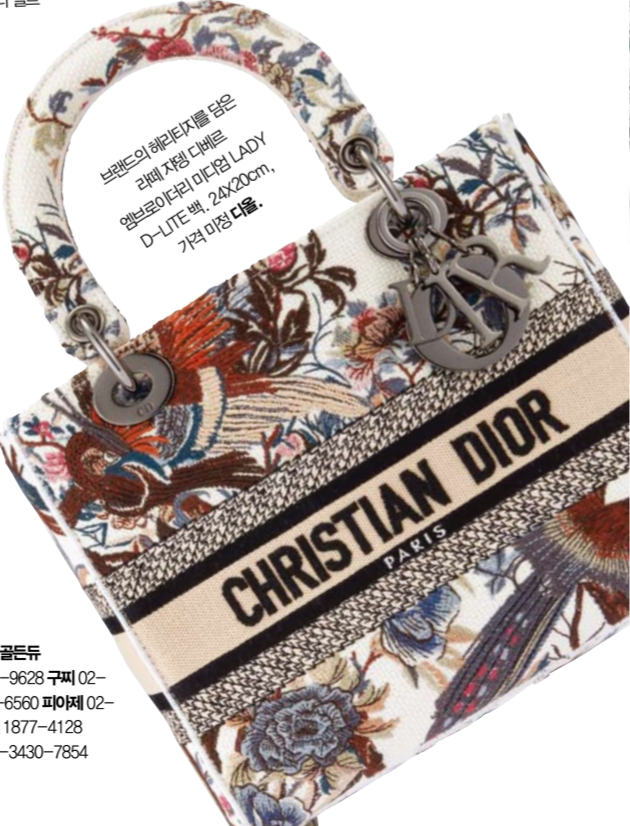
압두르 교차해서 착용 가능한 리버스블 레디 벨트
 90만원 대 토즈.



송이귀족 소재의
 새이느강으로
 반주춤 중 앙헬을
 1백만 원대 신비로워
 40000원 40000원 40000원



영양이 고 자유로 있던 여성, 기브라델 사냥꾼에서 영감을
 향수, 기브라델 사냥꾼 35ml, 47만5천원 사넬 뷰티.



브란스의 헤라클레스를 담은
 라베 사냥꾼 디에른 LADY
 엔젤로이부터 DIE-REN LADY
 D-LITE 백, 24X20cm,
 가격 미정 디올.

누에로벤루노 by 한스타입 1588-3717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골든듀
 02-1588-6576 부세론 신세계 강남점 02-3479-6028 사넬 080-805-9628 구찌 02-
 3452-1521 스와로브스키 02-2015-4653 말포 로렌 갈릭션 02-3467-6560 피아제 02-
 540-2297 셀린느 02-549-6631 토즈 02-3438-6008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사넬 뷰티 080-805-9638 디올 02-3480-0104 샹바틀레 레리카모 02-3430-7854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BELLE EPOQUE COLLECTION
 DAMIANI.COM

롯데 에비뉴엘 본점 02 2118 6131 •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 3213 2141 • 롯데 부산점 051 810 4165 • 롯데 동탄점 031 8036 3619
 신세계 본점 02 310 1533 • 신세계 강남점 02 599 1924 • 신세계 대구점 053 744 1924 • 신세계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042 607 8110 • 신세계 경기점 031 695 2049
 현대 본점 02 515 1924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79 • 현대 대구점 053 245 2294

SWAROVSKI

프레임에 로고 그래픽을 넣어 포인트를 준 선글라스 44만원 **알렉산더 맥퀸**.

화이트 컬러에 GG 로고를 새긴 캔버스 라지 데일리, 52X30cm, 3백50만원 **구찌**.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마이스트라쉬 8cc 포켓, 8.5X13.5cm, 30만원 **몽클랑**.

패치 포인트의 보온 캐시미어 울리네 모크 넥 니트 7백만원 **보테가 벤테나**.

니파 캄 스킨 소재 데일리로 장식한 캐시미어와 실크 혼방 바니 50만원대 **에트베스**.

데님 효과를 준 프린트 가죽 소재의 트라우저 7백50만원대 **보테가 벤테나**.

100% 카프 스킨 소재의 고키노 드라이빙 슈즈 70만원대 **토즈**.

3개의 세컨드 다이얼이 돋보이는 문양이 프루페셔널 코-엑시얼 미스터 크로노미터 3천5백만원대 **오메가**.

3개의 세컨드 다이얼이 돋보이는 문양이 프루페셔널 코-엑시얼 미스터 크로노미터 3천5백만원대 **오메가**.

FF 로고 버클이 포인트인 가죽 소재 벨트 70만원대 **펜디**.

모노그램 락 디자인의 시그니처 가죽 미팅 루이 비통.

스웨이드 패치 디자인의 체크무늬 플레드 트릴 셔츠 80만원대 **엘르 로렌 퍼플 라벨**.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풀 메탈 하우징과 인조 가죽 커버로 구성된 카메라, 13.9X3.8cm, 1천2백만원 **리야카**.

고급스러운 송아지가죽 소재의 원슬더 백팩, 30X34cm, 2백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브라운 컬러의 코르크 재질로 만들어진 캐주얼 브라운 컬러의 코르크 재질로 만들어진 캐주얼 브라운 컬러의 코르크 재질로 만들어진 캐주얼

모던한 디자인의 스웨이드 소재 셀시 부츠 7백만원대 **브루넬로 쿠치넬라**.

1927 Salvatore Ferragamo Firenze

for him Selection

기본 좋은 주말 나들이를 위한 남자의 선택.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구찌 02-3452-1521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다음 멘 02-3480-0104 몽클랑 1877-5408 에트베스 02-542-6622 오메가 02-3467-8632 토즈 02-3438-6008 보테가 벤테나 02-3438-7682 루이 비통 02-3432-1854 펜디 02-514-0652 리야카 1661-0405 엘르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브루넬로 쿠치넬라 02-3448-2931 프레드 070-4732-0479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올해 부산비엔날레 개막은 공교롭게도 서울을 들쭉치게 한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와 키아프(Kiaf)의 오픈닝과 같은 날에 떨어졌다. 정확히는 프리뷰 날짜가 겹친 건데, 일부 참여 작가도 방한했기에 상당수 미술계 관계자는 분신술이라도 구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 될 만큼 안타까워했다. 키아프와 프리즈가 공동 개최한 첫 번째 글로벌 행사인 만큼 아무래도 못시선이 서울에 쏠린 건 사실이다. 더욱이 구매 의도가 있는 컬렉터라면 VIP 프리뷰 데이'를 사수해야 '찝한 작품을 놓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트 페어는 소수의 컬렉터와 상업 화랑이 작품을 사고파는 장터이고, 비엔날레는 동시대 다국적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접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담론의 장이 전개되는 다중의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람회로, 행사의 본질 자체가 엄연히 다르다. '전시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그마저도 아트 페어는 예나 지금이나 회화가 장악하는 한편 작금의 비엔날레는 영상이나 설치 작품이 주를 이루기에, 사뭇 대조적인 풍경이 빚어진다. 아트 페어는 단기간에 끝나지만 비엔날레는 대개 한 달 넘게, 길게는 반년에 걸쳐 이어지는 대장정을 펼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사람들의 이동과 요동치는 역사 등을 함축한다는 타이틀 <물결 위 우리(We, on the Rising Wave)>를 내건 2022부산비엔날레는 65일 동안 열린다(11월 6일까지). 그러므로 늦지 않았다. 우리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제를 글로벌 작가(25개국 64팀/80명)의 시선과 다매체로 버무려낸 예술적 오라(239점)를 느껴보고

싶다면,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향하면 된다. 미술을 통해 내는 다양한 목소리로 인한 '각성'과 '통찰', 또는 부산의 '영혼'에 좀 더 다가서는 '발견'에 이르게 될지 누가 알랴. '부산의 뒷골목 이야기'는 세계의 대도시와 연결되고, 교차하고,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각기 다른 현재를 사는 모두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제안한다"는 부산 출신 김해주 전시 감독의 설명처럼 말이다.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항 제1부두, 초량, 영도를 무대로 펼쳐지는 전시는 '이주', '여성'과 '여성 노동자', '도시 생태계', '기술의 변화와 로컬리티' 등 4개의 주제로 이뤄져 있음을 기억하며, 부담 없이 떠나는 문화 산책을 추천한다.



미술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비엔날레(biennale)'라는 단어는 크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미술계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 미술전을 일컫는 이 단어는 20세기 후반 미술의 글로벌화 흐름과 더불어 새로운 비엔날레가 급증하면서 우리네 일상에 등장한 지 꽤 오래됐다. 부산은 1981년 지역 작가들이 뜻을 모아 탄생시킨 부산청년비엔날레를 전신으로 하는, 우리나라 비엔날레 역사에서 '최초이자 자발적'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사실 역사성이나 정통성을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산은 대체 불가한 매력을 품은 축제의 무대이지만 말이다. 특히 2018년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의 등장을 계기로 점차 부산의 원도심 일대를 탐색할 수 있게 된 미술 산책 동선은 그야말로 '강추할 만하다. 을숙도, 부산항 제1부두, 초량, 영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2부산비엔날레의 현장을 소개한다.

탐낼 만하지 않은가. 게다가 2018년 을숙도 생태공원에 문을 연 부산현대미술관(MoCA)의 등장을 계기로 해운대 일대에 머물던 비엔날레의 주 무대를 바꾼 건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싶다. 관광지로 익숙한 해운대가 아니라 작은 어촌에서 출발해 바다를 매워 땅 위에 일군 '항구도시'라는 부산의 역사와 장소성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우선, 주 전시장 역할을 맡은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한 낙동강 하구 일대는 다양한 생물종의 터전으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돼 있다. 1970년대 철새 도래지로 주목받았지만 산업화와 도시 개발 과정에서 크게 훼손됐다가 한때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기도 했던 파란만장한 이력을 지녔다. 이 같은 배경에서 부산현대미술관은 압축적인 성장과 변화를 겪으며 생겨난 부산의 도시 생태계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환경 파괴 문제를 곱씹어보기에도 적합한 장소에 다르아니다. 전통적인 조각 언어를 뒤집은 영국의 저명한 작가 필리다 발로(Phyllida Barlow)의 대형 설치 작품이 놓인 1층 전시장을 위시해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작품이 빼곡하게 들어선 전형적인 미술관 내 전시 구조라 공간의 미학은 다소 아쉽지만, 주제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다양하고 심도 깊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산책길 2_부산항 제1부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항구 시설인 부산항 제1부두. <부산의 탄생> 서문에서 저자 유승훈은 민족의 정서가 스며든 부산항 제1부두가 해방 후에도 귀한 동포들이 짐을 풀고 희망을 디딘 곳이자, 한국전쟁기에 미군이 무기를 내린 공간, 파란민을 위한 구호품이 수송된 장소로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증인' 노릇을 했다고 말한다. 북항 재개발 계획으로 매몰될 위기에 처했던 제1부두는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재개발 계획에서 분리됐고,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제1부두내 약 4,000㎡ 규모의 옛 창고 건물이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장내로 들어서면 경남 진해에서 수급했다는 굴 껍데기 더미를 단 나무 기둥을 원형으로 배열한 호주 작가 메건 코프(Megan Cope)의 설치 작품 '킹인야라 구윈얀바(Kinyingarra Guwinyanba)'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패총을 연구하는 작가는 산업 수요에 맞춘 굴 생산의 폐해를 주시하며 호주의 전통 양식을 재현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함께 상영되고 있다. 그 뒤에 자리한 광복이 하얗게 드러난 설치 작품도 눈길을 끄는데, 김주영 작가의 '제1부두의 고고학: 물결은 빛이 되다. 바람



1, 4 지난 9월 3일 개관한 2022부산비엔날레는 <물결 위 우리>라는 제목을 내세워 '이주', '여성'과 '여성 노동자', '도시 생태계', '기술의 변화와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전시 여행을 이어간다. 사진 속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부산항 제1부두 창고, 영도 공장, 초량 주택(이번 비엔날레의 전시 무대로 쓰이던, 역사, 산업과 밀접한 부산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부산의 장소성을 알아가도록 안내한다. 2 2022부산비엔날레 포스터. 워너블에서 디자인을 맡은 3종의 포스터 디자인이 있다. 포스터와 책자 등에 담긴 로고는 윌멧 W를 활용해 주제인 '물결 위 우리(We, on the Rising Wave)'를 표현했는데, 곡선형 W는 '물결(wave)'을, 직선형 W는 '우리(we)'를 표현했다고. 윌멧은 사람들의 이동, 요동치는 역사, 변화와 파장, 땅과 바다, 그리고 고상도 연결을 함축한다. 3 부산현대미술관 1층 전시장에 놓인 영국 작가 필리다 발로(Phyllida Barlow, b. 1949)의 대형 설치 작품. Untitled: Bluecacher: 2022, 2022, 철, 그물, 시멘트, PVA, 625×850×600cm. 이미지 제공: 작가 & 허우자렌리스. 5 PAK(2017년 걸상, '한티랜드: 마태에서 온 화석', 2022, 단채널 비디오 설치, 시멘트, 철, 10분. 패블 제작: 부리안타 펠. 6 2022부산비엔날레 전시장의 해운대 부산항 제1부두 창고 공간. 7 말레이시아 작가 총 김차류(Chong Kim Chiew)의 영상 설치 '경계 유동성(Boundary Fluidity)', 2014~ , 방수포에 아크릴, 단채널 비디오, 240×180cm(30), 13분 46초. 8 굴 껍데기가 달린 7등이 높이 10m인 호주 작가 메건 코프(Megan Cope)의 설치 작품. '킹인야라 구윈얀바(Kinyingarra Guwinyanba) Of Country', 2022, 굴, 목재, 철, 가변 크기. 동명의 다큐멘터리도 상영하고 있다. 9 김주영, 제1부두의 고고학: 물결은 빛이 되다. 바람이 되다, 2022, 혼합 매체, 가변 크기 10 휴대용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송진영, 1985, 한국 작품 '커스텀을 2022부산비엔날레 <물결 위 우리>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는 모습. 11 송진영의 영상 작품은 부산 초량 언덕에 있는 빈 주택 안에서 상영 중이다. 12 울해 배. 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이기도 한 이태백, 1988, 한국의 대형 설치 작품으로 영도의 폐공장 터에 설치됐다. 13 구멍이 많은 풍경: 영도 바다 피부, 2022, 비계, 배양, 공사 가림막, 1620×2160×1660cm 13 영도 전시장의 외부 공터에 자리한 일련의 이태백 그룹 '침 1' 포름 스페이스 설치 작품. 부산의 공영 막걸리를 오징어 먹물을 활용해 일본 탁주 제조 방식으로 해산된 검은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Drink It Yourself, 2022, 막걸리/도부루쿠, 설치 14 지붕도 산마와 초선소 등을 접할 수 있는 영도 전시장 근처 풍경. 바로 인근에 인기 카페인 모스 로스터리 & 키비 바가 자리한다. 참고로 초량과 영도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부산항 제1부두 전시장을 기점으로 셔틀버스 2개 노선을 무로로 운영하고 있다. ※ 1~6, 11, 12 이미지 제공: 부산비엔날레 7~10, 13, 14 Photo by SY Ko



11, 12, 13, 14 이미지 제공: 부산비엔날레

심으로 흥미롭게 서사를 전개하는 타비타 르제르(Tabita Rezaire)의 '땀물과 땀물 아래', AI와 머신 러닝으로 강화된 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 떠남과 귀환의 반복이 이어지는 노매딕한 작업 여정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작업 세계를 구성하는 4원소(살, 재, 황토, 소금) 중 소금을 바다 물결에 담으며, 제1부두에서 거둔 새의 시체를 위한 영혼제를 치렀다. '전자 식민주의' 이론을 중

#산책길 3_초량
아담한 건물들이 뻘뻘하게 들어찬 초량의 거주지 풍경은 일제강점기 28만 명이던 부산의 인구가 1980년에 3백50만 명대에 이르게 된 압축 성장과 인구 변화의 증표나 다름없는 듯하다. 올해 부산비엔날레는 초량의 언덕에 위치한 집 한 채를 전시장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부산 출신인 송민정 작가의 영상 작품을 휴대폰에 담아 선보이고 있다. 스물세 살 되던 해, 해외 발령으로 신남 기술자 남편을 따라 정착하게 된 하루코와 춘자의 스토리를 담은 '커스텀'이라는 작품으로 그들의 스마트폰을 주된 제작하며 일어나는 미스터리 스텔러물이다. 쓸쓸한 듯 양중맞은 집 여기저기에 설치된 휴대폰 스크린을 응시하며 가만히 나지막한 독백을 듣노라면 오싹한 스텔러 분위기보다는 사공간을 잠시 초월한 느낌으로 나름의 '힐링'마저 선사하는 듯하다. '여성'과 '여성 노동자', '이주' 같은 이번 비엔날레의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부산항 제1부두 전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비엔날레라는 행사는 작품의 규모가 압도적이고 다수가 영상 작품인데, 마치 지구촌을 아우르는 커다란 세계를 한꺼번에 접하는 듯한 장점도 있지만 되도록 많이 '접렴'하려 하면 피곤해지기도 하는 단점도 따른다.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면 빠르게 훑어본 뒤 한두 작품만이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보는 편이 '내설'에 더 보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산책길 4_영도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뒹도는 현인의 노래' 굳세어라 금순야의 2월 가사에서 느껴지듯 영도는 한국전쟁 피란민들의 애환이 깃든 '이주'와 '노동'의 섬이다. 그 서러움을 잘 모르는 시절에 성장한 필자는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에 온라인으로 개막했던 부산비엔날레 현장을 직접 찾았다가 부산과 영도를 연결하는 영도다리를 처음 건넜는데, 당시 비엔날레 콘셉트가 탐정처럼 부산의 이모저모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해에 가장 뇌리에 남는 애잔한 풍경을 저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신기하게도 그 새 옛 초선소 자리에 들어선 초대형 복합 문화 공간 피크의 등장 등으로 영도는 젊은 층이 모여드는 핫스팟이 됐는데, 그런 변화한 기운 속에서도 여전히 고독한 자태를 풍기는 폐공장과 폐수리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부산비엔날레에도 한 곳(송강중공업 폐공장에 전시장이 들어섰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이태백의 커다란 설치 작품(태풍으로 자봉과 벽체 일부가 날아가는 바람에 드러난 골조를 작업의 일부이자 배경으로 수렴한 작품) '구멍이 많은 풍경: 영도 바다 피부가 꽤 강렬한 오라를 발산하는 전시장 안에는 제1부두에 전시된 이디스 아미투나이(Edith Amituanai)의 영상 작품 '라우 펠레 모야나에 등장하는 사이렌 크루를 촬영한 대형 사진도 설치돼 있다. 또 미술 영상과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야외 극장도 꾸리고 있으니(매주 무~일) 운치 있는 감상에 관심 있다면 홈페이지(www.busanbiennale.org)와 SNS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을날도 그리 길지는 않다. 글 **고성현**



Interview with 로르 프루보(Laure Prouvost)

feel with all your Senses!



프랑스 출신으로 드물게 영국의 권위 있는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을 받은 로르 프루보(Laure Prouvost)는 비디오, 설치, 조각, 회화 등의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발군의 스토리텔러다. 지난 베니스 비엔날레(2019)에서는 영화보다 더 상상력 넘치는 프랑스 국가관 전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은 어떤 게 실재이고 어떤 게 허구인지 아리송할 정도로 경계는 모호하다. 하지만 그 지점을 철사 질투 이해한다고 해도 그 또한 새로운 예술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그녀는 말한다. 지난 3월,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선보인 국내 첫 개인전 <심층 여행사(Deep Travel Ink.)> 이후 2022부산비엔날레에서 다시 만나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마치 그녀가 아득한 물의 정령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는 설치 작품과 영상으로 돌아왔다. 서면 인터뷰를 통해 로르 프루보의 독특한 감성과 세계관을 들여다봤다.

언어와 관습이 지배해온 이성 중심의 세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물과 사람들은 좀 더 순수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완벽해 보였던 세계의 빈틈에서 어느 날 그 사물을 문득 깨닫고 전혀 다른 시간으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 그리워분해하거나 우리가 편견 가득한 사람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가끔씩 자다가도 왜 그랬을까?라고 끙끙대는 실수나 오프미자도, 다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보통의 기준에서 벗어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사는 브뤼셀 외곽 도시 몰렌베크(Molenbeek)가 오랫동안 반차되었었기에 많은 관심과 사람이 필요한 도시라고 말하는 로르 프루보(Laure Prouvost, 1978년생)의 작품은 어쩌면 그녀라는 커다란 퍼스낼리티의 일 부라는 생각이 든다.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우리 할

머니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그녀의 작품은 대체로 자신의 작가가족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품처럼 사실과 허구가 마구 뒤섞여 있지만,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는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 파자하는 듯하다. 로르 프루보의 작품을 볼 때는 그녀가 미디어 아티스트인지, 영화감독인지, 혹은 설치미술가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장르를 다양하게 넘나드는 데도 그녀의 작품은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고, 새로운 맥락에 놓였을 때의 존재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마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시인 로트 레이몽의 말대로의 노래 중 재봉틀과 우산이 수술대 위에서 우연히 만나 듯 아름다운이라는 문구처럼, 서로 아무 연관이 없는 듯한 두 사물을 함께 놓았을 때 발생하는 '사적인 힘에 대한 강도 같은 것이랄까?' 사실 로르 프루보는 모든 것을 사적인 관측 속에 배치하기도 한다.



여행, 탈주, 소속감을 담은 정신적 여행

이 아름다운 초현실주의자 로르 프루보가 작업의 핵심을 이루는 키워드로 꼽는 것은 '여행, 탈주, 소속감' 이 개념들만 머릿속에 잘 챙겨놓으면 우리는 그녀가 만든 공간 속에서 신선한 스텝기를 맛볼 수도 있고, 문어가 헤엄치는 심해로 함께 웃을 수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새와 나무, 풀과 꽃, 해변과 별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몸속을 여행할 수 있을까 등을 둘러싼 그녀의 화두는 언뜻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초월한 예술가의 위치나 자본주의의 이면을 비판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끊임없이 말해준다. 실제로 작가는 '이게 필요할 것이라는 걸 알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주술적인 이투로 영상에 입혀며 끊임없이 관객에게 말을 건다. "저는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때때로 저에게 작업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순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순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해요." 한 인터뷰에서 로르 프루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유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층 여행사에서 물의 여정까지, '프루보'의 운을 따라가자

그녀의 유머 감각은 지난해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린 국내 첫 개인전 <심층 여행사(Deep Travel Ink.)>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20cm 높이의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위아래가 뒤집힌 지도, 푸른색 물이 담긴 수조, 할머니 레사피를 따른 채(ke) 등 범상치 않은 장치가 곳곳에 펼쳐지는, 기묘한 여행사 사무실을 차려놓은 전시였다. 그녀는 당시 인터뷰에서 "정말로 심층이 몇 년 전 뉴욕에서 시작한 여행사인데, 심층이 이 여행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심층입니다. 사람들의 자의식과 자신의 욕망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여행의 목적지는 그녀가 가상으로 설정한 전설적인 할아버지의 탐험과 연결되며, 멋진 도자기를 만드는 할머니의 꿈으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한 예술가의 위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녀에게 터너상을 인건 영상 작품 'wanite(Wantee)'에서는 진흙투성이 발이 나오는데, 로르 프루보는 당시 이 발을 할아버지의 거품이라고 소꿉했다. 할아버지는 집 아네 굴을 파서 아프리카까지 이어서게 하려고 했지만, 어느 날 그 굴



1 프랑스에서 태어나 현재 벨기에에서 거주하는 로르 프루보(Laure Prouvost)는 한때 영국에 정착해 작품 활동을 한 경력이 있으며, 2013년 영국 미술가(외국에서 활동하는 영국 국적 미술가)와 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미술가도 포함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터너상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현실의 관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점으로 관객을 안내하는 빼어난 스토리텔러다. Portrait of Laure Prouvost, 2016 © Laure Prouvost; Courtesy Lisson Gallery, Photography by Sanna Albenius 이미지 제공 에르메스 제단 2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2022부산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로르 프루보의 설치 작품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바다의 깊은 곳까지, 2022, 혼합 매체, 가변 크기 3 2022부산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영상 작품 스틸 컷, 'Four For See Beauties', 2022, HD color video, stereo sound, 15min, 14sec. 4, 5 지난봄, 서울 도산공원 인근에 자리한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전시한 '아찌씨의 여행사'가맹점(2016-ongoing). 아국적인 지도와 포스터, 영상 등으로 가꾸어진 여행사처럼 꾸민 전시장에 들어서자면 120cm의 작은 문을 통과해야 했다. 사진 김상태 © 로르 프루보; 에르메스 제단 제공 6 로르 프루보의 설치 작품 'Touching To Sea You Through Our Extremities', Beaufort21, La Panne, 2021. Photo by Filip Claessens 7 2019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They Parlaient Idéale', video and installation as part of Deep See Blue Surrounding You, 2019, French Pavilion, © Cristiano Corte ※ 2, 6, 7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e Busan Biennale 2022

작업을 하고 들어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아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야기는 허구일까, 실재일까?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전시에서는 문어를 중심 모티브로 선보였는데, 관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의 촉수가 되어 지구의 삶에 민감해지고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 메시지는 이번 부산비엔날레에서 선보인 'Four For See Beauties' (2022)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아자수로 엮어 만든 태블을 차나면 영상이 상영되는 붉은 방에 도착하게 되는데(부산현대미술관 지하 1층), 다양한 해양 생물과 야기, 3명의 여자가 한데 어우러져 우리의 근원이 '물'이었음을 이야기하는 몽환적인 화면이 펼쳐진다.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마치 직접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정도로 작가와 기깝게 느껴져 그녀의 이야기까지 더 공명했다. 다음은 작가(가)시로 답변한 부분을 그대로 실린 문답 내용이다.

Style Chosun(이하 S) 당신은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요. 동시에 작가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Laure Prouvost(이하 LP)** 나, 나,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저 바다 깊은 곳까지 / 드높은 구름 위에서 자유로운 내 머리 속까지, 이 은하계의 지공 안에서 / 나의 코 끝에서, 너의 발 끝까지 / 너를 꼭 안고 / 아아

S 2022부산비엔날레에 출품된 'Four For See Beauties'는 인간과 다른 삶의 관점, 인간 진화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물의 여정에 내포된 의미가 궁금합니다. **LP** 이 작품은 인간의 물의 근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부분의 제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는 여(사)도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인류 역사의 진화(進) 이전적 시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촉각과 소리가 전부였던 변형의 시기 말이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면 기본이 어떨까요? 물고(어)릴 바닷속을 헤엄치는 기분은요? 이 작품은 인간과 동물, 자연 사이의 다양한 의식의 단계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존재에 다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될 수 있을까, 비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입니다.

S 당신의 작품에는 이 시대의 삶과 예술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 사회의 대한 은유적 비판부터 젠더, 환경, 자본주의 등 현실 문제를 내포한 시요. 'Four For See Beauties' 영상에 등장한 아찌와 세 여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LP** 이미지가 녹아내리네 / 나는 땅속으로 녹아내리네 / 나와 함께 녹아내리네 / 우리 몸이 땅속으로 녹아내리듯 / 이미지가 젖어 그 물이 흘러 / 우리의 따뜻한 몸처럼 부드럽게 / 나는 우리처럼 녹아내리네

S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스토리텔러인데요, 플롯이 무척 정교하고 환상적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협업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과 일하나요? **LP** 가족은 제 작업과 매우 밀접합니다. 저는 삶과 예술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관심을 키워줄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그녀의 차주전처럼 전 시회에 쓸 수 있다고 물어보는데, 전 언제나 좋다고 대답하죠. 전시에서 관객들이 차를 미실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요. 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미술 세계에서 할머니의 입지는 저에게 더욱더 많은 영향을 줬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의 모든 할머니와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방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영상은 현재 2022부산비엔날레에서 전시되고 있는데, 저의 8개월 아기와 함께했어요. 아이 또한 저의 또 다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S 당신은 영상부터 설치, 회화, 테이프스트리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죠. 장편영화(영화)를 찍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시인 같아요! **LP**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는 부유(浮遊)하며, 우리는 부유... 유해네 / 우리는 부유해네, 우리는 부유해네, 우리는 유해네, 유해네, 유해네 / 우리는 공중부양 하네, 우리는 공중 하네, 우리는 공중부양... 부양, 부양해네 / 우리는 먹어 치웠네, 우리는 먹어 치웠네, 우리는 먹어 치웠네, 우리는 공중부양 하네 /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아니 / 우리는 불붙었네, 우리는 불붙었네 / 우리는 잔뜩 채웠네, 그들은 잔뜩 채웠네, 우리는 먹어 치웠네, 우리는 공중부양 하네, 우리는 먹었네, 우리는 먹었네 / 우리는 공중부양 하네, 우리는 먹어 치웠네, 우리는 몹시 싫었네, 우리는 몹시 싫었네!!!

S 영상이 무척 감각적입니다. 동시대 가장 흥미로운 미디어 아티스트로 꼽히기도 합니다. 보이스오버 효과와 강력한 사운드, 고숙 편집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매우 주술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LP** 관객들이 제 영상 작품을 볼 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미지란 냄새도 나고 맛도 느껴지며 부드럽거나 끈적한 감촉도 느껴지는 대상이거든요. 이번 부산비엔날레에서 전시 중인 'Four For See Beauties'는 다른 영상 작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리듬은 느리고 다소 은밀하다고 할 수 있어요.

S 꿈과 무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이미지와 기억, 서사 사이를 어긋나게 하며 꿈과 무의식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에릭슨의 언어와 이미지의 상식적이지 않은 관계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LP** 제 작업에서 언어를 이미지로, 미디어나 퍼포먼스를 필름이나 조각으로, 저의 잠재의식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 합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게 동일한 언어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결합된 이미지와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이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는 유머가 필요하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S 올해 벌써 두 차례 한국(서울과 부산에서) 전시가 열리게 됐네요. 서울과 부산에 대한 인식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나요? **LP** 부산에 머무는 동안 오전 중 해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림이 갑자기 멈추더니 20마리의 문어



가 바다에서 나왔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죠. 해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근사한 시간을 보냈고, 무척 여유롭고 따뜻해서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S 젠더, 자본주의, 환경이 당신의 주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주제와 앞으로 선보일 전시도 궁금합니다. **LP** 이주, 눈물 / 국경, 공중부양, 연결, 자유 등이 제가 집중하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11월에 오슬로 국립박물관, 10월에는 프리즈 런던(Frieze London), 런던 파피럴리 서커스의 사(CIRCA), 마드리드의 라 카사 엔센다(La Casa Encendida) 등에서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S 당신의 하루하루가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예술가는 매우 규칙적인 회사원처럼 생활하고, 어떤 예술가는 방랑자처럼 살기도 하는데, 당신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LP** 작업실에 사람들이 모이는 가족 모임 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됩니다. 마법 같은 잔치 제물이 가득한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노래하고, 차를 미시고, 글을 쓰고, 춤을 춥니다. 글 **수진**이데리, 다들렌트 크리에이티브 데파트(Ednet) Edited by **고성연**

Simple Pleasure

여성의 가려진 욕망을 더욱 우아하게 장식해주는 **팬던트 데크러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자스트 영 플루 데크러스** 꽃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의 아이콘적인 디자인 팬던트. 화이트 골드 소재 및 모티브 양 끝에 0.12캐럿 다이아몬드 147개를 사용해 포인트를 주었다. 6백만원. 문의 1877-4326 **반젤리프 아펠 프라텔 콜리넨 팬던트 엑스트라 라지 모델** 싱그러움 빛을 담은 스크래티스 주얼의 컬렉션의 라지 사이즈 팬던트. 섬세한 플로럴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눈부신 반짝임을 담았다. 3천8백만원. 문의 1877-4128 **쇼피드 프레스시 레이스 미니-프루프루** 레이스의 섬세함에 서 영감을 얻은 현대적이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주얼리 컬렉션 팬던트. 플라워 모티브의 스카림 테두리와 패어 컷 다이아몬드 꽃잎 장식이 돋보이며, 18K 화이트 골드에 1.04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3백88만원. 문의 02-6906-3330 **타미니 빈토리야 브랜치 팬던트**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표현한 브랜드 대표 컬렉션 빅토리아 컬렉션의 미니 사이즈 팬던트로, 은은한 물결 모양의 플라타늄에 마카스 컷과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배치해 반짝임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피아제 신화이트 스톤 팬던트** 태양 빛을 표현한 트리아앵글 모티브 디자인으로, 화이트 골드에 세팅한 1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13캐럿이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발하는, 작지만 화려한 팬던트 3백만원. **쇼피 조세핀 듀오 에메랄드 화이트 골드 팬던트**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1.19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1개를 세팅한 길이 45cm의 데크러스. 파베 세팅한 패어 컷 다이아몬드가 서로 얽힌 디자인이 시련으로 헤쳐낸 두 연인을 연상시킨다. 1천8백30만원. 문의 02-3442-3359 문의 02-540-2297 **에디터 상영민**

Time Perfection

정제된 우아함과 강인한 남성미를 겸비한 데일리 하이엔드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에서 시계 반대로) **블리키 워치 파니시오** 샌드 블라스트 처리한 블랙 세라믹 소재의 울트라-스킨 케이스 두께 5.5mm와 다이얼, 브라이슬릿을 매치해 극도로 모던하다.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BVL 138로 구동하며, 다이얼 8시 방향에 스톤 세팅잔을 배치해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및 30m 생활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케이스 직경은 40mm다. 2천1백만원. 문의 02-6105-2120

에거 르클레트 플루리다이트 그린 1968년 출시한 허쉬스아이코닉 디자인 워치. 메모박스 플루리다이트를 재해석한 모델. 수직엽 레커 칩과 함께 신웨이퍼. 신을 기념한 올리브 그린 컬러의 그라데이션 다이얼이 매력적이다. 간결한 실루엣의 저름 42mm 스틸 케이스는 세련파니시 처리했고, 편리하게 교체 가능한 클루프 피리 모티브의 그린

러브 스트랩을 매치했다. 에거 르클레트 칼라버 889로 구동하며 7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1천2백만원. 문의 1877-4201

까르띠에 파사드 까르띠에 다이얼에 탈착 가능한 그리드를 배치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워치. 저름 41mm의 옐로 골드 케이스, 다이아몬드 모양의 블루 스틸 핸즈를 얹은 실버 플린케 다이얼, 블루 얼리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다. 짙은 채안으로 연결한 플루티드 크라운 카버 아래 감춰진 와인딩 크라운에는 카보숏 컷 시파이어를 세팅했다. 인하우스 칼라버 1847 MC로 구동한다. 2천8백만원. 문의 1877-4326

피아제 플로 데이트 라운드 케이스 내에 쿨스팅 다이얼을 배치한 아

이코닉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 감각적인 그린 컬러의 기요세 다이얼과 얼리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한 동시에 캐주얼한 맛을 드러낸다. 저름 42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1110P를 장착했고,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위치한 다.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및 10ATM(100m) 방수가 가능하다. 3천8백만원. 문의 1668-1874

IWC 빅 파일럿 워치 43 항공 시계의 정제성을 계승하는 모델로 1940년대 군사 관측용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간결하고 기능적인 조종석 개기판 디자인. 원형 모양의 오퍼레이팅 크라운 등이 특징이다. 저름 43mm의 스틸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을 장착했으며, 미세 조정 시스템EasX-CHANGE를 갖춘 스틸 브라이슬릿과 함께 제공한

다. 시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인하우스 칼라버 82100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1천2백30만원. 문의 1670-7363

오메가 칸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1MM 저름 41mm의 스틸 & 옐로 골드 케이스를 장식한 고유한 컬러 디테일과 반달 모양 패시지 시선을 끈다. 오메가 세라클드™로 로하트 자 인테스를 새겨 넣은 블랙 세라믹 베젤을 장착했고, 산웨이 패턴의 그라데이션 다이얼을 더했다. 러버 라이닝 처리한 다크 그린 컬러의 레더 스트랩과 함께 제공한다.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탑재해 탁월한 정확성을 입증받은 인하우스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오메가 8900으로 구동한다. 1천2백30만원. 문의 080-050-8383 **캐디언터 아메이**

1900년대에 레드·그린·블루 컬러를 조합해 루비 브루티 컬렉션을 선보인 까르띠에. 2층에서 영감받아 루비 브루티 컬렉션을 새롭게 해석한 네르리스는 우수한 장스톤 조각 양쪽의 깃털 모티브를 때마에 브르치나 머리 장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조각한 듯 상층에 같은 실본산 50.63캐럿 사파이어 펜던트를 이용해 네르리스를 연장할 수 있다. 2. 대강 광선 모티브 브르치나 브라스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오닉스 사탕이 돋보이는 벨라주 펜드 드 까르띠에 워치. 메종에서 만날 수 있다. 3. 까르띠에 메종 창단의 문을 열고 들어선 첫 번째 저층 마추하게 되는 공간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4. 새롭게 오픈한 까르띠에 메종 창단을 기념하는 배너이 메종 창단 인스클루시브 에디션. 3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까르띠에 메종 창단에서 만날 수 있다. 5. 컬러 대박이 돋보이는 2층 맨즈 컬렉션 공간. 6. 1층에 위치한 VIP룸. 7. 4층과 5층을 하나로 연결하고 보자기로 둘러싼 듯 이국적인 공간을 연출한 라레잔딩스.

The New Landmark

오랜 역사와 새로운 문화가 하모니를 이루는 역동적인 도시, 서울. 그중에서도 럭셔리 패션의 흐름을 선도하는 트렌드 격진지인 청담동에 자리한 까르띠에 메종 창단이 10월 1일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드러냈다. 빛과 투명성, 그리고 개방감을 강조한 공간 구성은 누구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국내 하이주얼리의 역사를 대변하는, 다름

2008년 럭셔리와 하이엔드 패션의 중심지인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아시아 최초 메종인 까르띠에 메종 창단. 이후 8년 뒤인 2016년에 이진과 함께 리뉴얼을 진행했는데, 프랑스 대저택의 건축양식을 기반으로 한국적 아름다움까지 놓치지 않은 새로운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다. 올해 진행된 두 번째 레노베이션에서는 프라이빗한 대저택의 위용 대신 집과 같은 편안함을 택했다. 주변 환경과 내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구조의 건축물, 한국적 미감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내부, 건물 전체로 고스란히 들어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자연광 등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더해 동시대에 영감을 주는 살아 있는 유산을 만들어낸 것. 팬더, 러브, 저스트 앵 끌루 등 시대를 초월해 새로운 해석을 더하는 까르띠에의 크리에이션을 집합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의 취향과 감각에 기반을 둔

메종의 정신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로컬에 대한 존중과 협업을 바탕으로 공간을 기획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같은 부티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주위와 조화를 이루며 로컬 터치를 통해 독창적 스타일을 구축하기 때문에 까르띠에 메종은 살아 숨 쉬는 문화적 허브로서 의미를 담은 공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 그곳에서 새 단장하고 고객을 맞이하는 까르띠에 메종 창단에서는 디자인과 라인의 긴장감, 기하학 모티브 등을 통해 서울의 독창성을 포착하고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쏟은 수많은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서울의 개성을 담아낸, 조화

먼저 메종 전체를 아우르는 컬러로 까르띠에의 샴페인 골드 컬러를 채택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 까르띠에 부티크 디자인 계획에 참여해온 모이나르 베타유 건축 사무소의 브루노 모이나르(Bruno Moinard)와 클레르 베타

유(Claire Betaille)는 샴페인 골드 컬러와 부드러운 소재를 결합해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이 두 '외국인'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국의 미적 요소가 공간 내부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는데, 무엇보다 산수의 유려한 선, 소재를 투과하는 섬세한 빛, 한옥의 문살과 창호, 그리고 보자기 같은 디테일로 까르띠에와 서울의 교집합을 찾아냈다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자리한 까르띠에 메종 창단은 층별로 확실한 관전 포인트를 지니고 있다. 아이코닉한 우먼 컬렉션이 펼쳐지는 1층은 한국 산지락을 부드럽게 물결치는 선과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 마치 한국의 산수를 품고 있는 듯하다. 포커스 월에는 경복궁 향원정의 연못을 유유자적 거니는 까르띠에의 상징 팬더가 자리 잡고 있으며, 크리스털 상들리에에는 연못에 피어나는 연꽃과 까르띠에 주얼리에서 볼 수 있는 플라워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 2층에서는 브라이덜부터 맨즈 컬렉션까지 까르띠에의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넘나드는 새로운 여성이 펼쳐진다. 태양 빛을 형상화한 천장의 무늬, 존 폼프(John Pomp)의 서정적인 상들리에, 장인이 드라이플라워를 하나하나 작업해 특별 제작한 콘솔, 소나무와 까르띠에의 상징인 팬더가 추상적 패턴처럼 어우러진 포커스 월 등 한층 더 선명하고 대조적인 소재와 색감으로 1층과 차별을 뒀다.

'르 살롱 프레스티지(Le Salon Prestige)'라 이름 지은 3층은 까르띠에 스타일과 창의적 비전을 담은 하이주얼리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이곳에는 특별 제작한 자개 모자이크 콘솔이 자리하는데, 이 자개 모자이크 하나하나씩은 원석 컬러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며, 메종의 감각을 가장 내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진정한 하이엔드임을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지하 1층에는 튜뉴스 또는 신문 1면을 의미하는 '까르띠에 아라 윈(Cartier à la Une)'이란 이름을 붙였다. 까르띠에의 다양한 컬렉션이



자유롭게 교차하는 팝업 공간으로 천장과 바닥에 장식한 거울, 석재와 우드 마키트리 기법으로 만든 특별한 책장과 핸드 페인팅한 매화를 상징하는 월페이퍼 등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새로운 메종 창단의 하이라이트는 4층과 5층을 하나로 연결한 개방감 있는 층고에 쏟아지는 자연광이 돋보이는 '라 레지던스(La Résidence)'. 유연한 곡선을 활용한 이 공간은 분위기와 배경을 조절할 수 있는 크고 긴 테피스트리로 연출

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보자기를 까르띠에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다. 모임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재배치 가능한 베일로 둘러싸인 라 레지던스 가운데에 자리하면 보자기에 감싸인 듯 이국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공간의 유연성을 건축적 은유로 표현해 절로 놀라움을 자아내는 이 공간에서 까르띠에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크리에이터의 도시, 서울을 기반으로 창의적 영감을 주고받는 다양한 아트와 컬처 프로젝트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에디터 장미윤



interocio with_ 김씨라(까르띠에 코리아 시장)



메종 창단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까르띠에 코리아를 이끌어 국내 하이주얼리 시장에서 럭셔리 리테일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김씨라 시장을 만났다.

01 까르띠에 메종 창단은 2008년 아시아 최초로 메종 오픈, 2016년 이전 오픈, 그리고 2022년 레노베이션 오픈 등 총 세 번의 이슈가 있었다. 그때마다 하이주얼리 메종이 지향해야 할 비전이나 국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목표 등이 달랐을 듯한데? 2008년, 백화점 쇼핑에 익숙

한 한국 시장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는 것은 꽤 도전적이고 모험이었다. 당시 국내에서 까르띠에에는 예뻐 시계의 대명사로 불렸는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통해 주얼리로서의 이미지를 키워보고자 했다. 2016년 미션은 까르띠에 하이주얼리를 알리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하이주얼리를 접하게 하기 위해 대체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럭셔리 공간이 필요했다. 2022년 고객 트렌드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명품을 즐기는 고객의 연령대도 성별도, 취향도 다양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창단동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고, 상품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 & 컬처, 즉 삶에 스며드는 경험을 통해 여러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02 까르띠에가 메종 창단을 처음 오픈한 2008년에는 백화점 쇼핑 중심의 국내 소비자에게 하이주얼리나 하이엔드 워치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면 우린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워치 브랜드 이미지에서 주얼리로, 주얼리에서 하이주얼리로, 그리고 지금은 카테고리들을 확장해 고객의 삶으로 스며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어머니의 까르띠에 목걸이를 물려받고, 결혼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까르띠에 반지를 선택하는 등 인생의 모먼트를 함께하는 까르띠에의 가치와 믿음을 믿고 성장하는 중이다.

03 브랜드들이 아트 & 컬처에 정성을 쏟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새롭게 출발 만한 이슈는 아니다. 까르띠에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다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2017년에는 서울시립 미술관에서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기획전)을 열고 론 뮤익(Ron Mueck), 셰리 삼바(Chéri Samba) 등 세계적 이티스트들과 박찬욱·박찬경의 아티스트 듀오 파킹 찬스(PARKING CHANCE), 이불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소개했다. 그리고 2021년 문신시 작가로 하여금 한국의 정

04 새롭게 바뀐 메종 창단의 모습은 비밀에 싸인, 접근하기 쉽지 않은 프라이빗한 대저택의 느낌보다는 열린 구조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집과 같은 모습이다. 어떤 요소들이 바뀌어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인지. 2016년 리뉴얼 때 구현하고자 한 것은, 모든 프랜차이즈 아닌 우리 자널 프랜차이즈였다. 웅장하고 거대하고 럭셔리한 느낌, 닫힌 문과 숨겨진 공간이 주는 비밀스러운 하이주얼리와 잘 어울렸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메종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여정(journey)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뤄진다. 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메종 곳곳에서 느껴지는 개방성과 빛의 투과성, 백자의 하얀 투명성과 산수화의 곡선 등이 그러한 요소가 아닐까 한다.

05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은 어디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되고 뿌듯한 공간은 아트 & 컬처 스페이스인 라 레지던스다.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곳은 1층과 3층의 테라스라고 생각한다.

06 서울에서만이나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앞으로 메종 창단이 어떤 랜드마크로 자리 잡길 원하는지. 서울에 있는 프랑스의 메종이라는 유니크한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전 세계 까르띠에 메종 중 유일한 아트 & 컬처 허브로 확장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다양한 고객 영감을 받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살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울 혼방 패브릭 소재의 오버 셔츠
2백25천원, 그레이 컬러 니트 잠업
카디건 가격 미정, 캐시미어 혼방 니트
소재의 터틀넥 70만5천원, 울 플란넬
소재의 배기 팬츠 1백13만5천원, 베이지
컬러 레이스업 부츠 가격 미정 모두 토츠.

HIGH IMPACT

다양한 컬러와 소재의 대담한 믹스 매치로
즐기는 2022 F/W 맨즈 웨어 컬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왼쪽) 아이보리 & 옐로 컬러 실루엣
더블 브레스트 재킷 5백83천원,
코튼 포플린 실루엣 셔츠 1백32천원,
시가렛 실루엣 팬츠 2백32천원, 화이트 컬러
핑크 부츠 가격 미정 모두 **일렉산더 맥퀸**.
(오른쪽) 옐로 컬러 패턴 레인코트 가격 미정,
오렌지 컬러 터틀넥 둘 가격 미정, 블랙 레더
오버올 가격 미정, 브러시드 레더 스트랩
파이프 부츠 2백42천원 모두 **프라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랭 스킨 소재 블랙 컬러 재킷, 실크 소재 블랙 컬러 시스루 롱, 울 실크 혼방 소재 블랙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부바니**, 카프 스킨 소재 원 스타드 스니커즈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부바니**, 울 멜트 소재의 블랙 컬러 밀리터리 재킷, 스트라이프 울 소재의 캐주얼 팬츠, 부드러운 레더 소재의 집업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블랙 컬러 테일러드 재킷, 블랙 컬러 셔츠, 블랙 컬러 팬츠, 블랙 컬러 타이, 레더 소재의 블랙 컬러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블랙 컬러 슬림 핏 재킷, 블랙 컬러 롱 슬리브 티셔츠, 포켓 디테일이 들어간 블랙 컬러 와이트 팬츠, 블랙 컬러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자카르시**, 나일론 소재 인브로이 처리 블랙 컬러 롱, 울 실크 혼방 소재 블랙 컬러 팬츠, 비스코스 소재 블랙 컬러 글러브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부바니**, 카프 스킨 소재 원 스타드 스니커즈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부바니**.



(오른쪽) 레더 재킷 가격 미정, 아가일 패턴의 그레이 컬러 V넥 니트 롱 가격 미정, 레더 소재의 브라운 컬러 셔츠 가격 미정, 레더 벨트 가격 미정, 다크 그레이 컬러 니트 스웨터 가격 미정, 레더 소재의 블랙 바이커 부츠 3색 2인원 모두 **미우 미우**, (오른쪽) 다크 그레이 컬러 링 스웨터 3색 2인원, 다크 그레이 컬러 롱 슬리브 티셔츠 가격 미정, 다크 그레이 컬러 테일러드 팬츠 2색 2인원, 브라운 컬러 슈즈 가격 미정 **버버리**.

(왼쪽) 울 소재 버건디 컬러 니트 롱 1백만원대, 실크 소재 패턴 셔츠 1백만원대, 울 소재의 버건디 컬러 팬츠 1백만원대, 카프 레더 소재 실버 컬러 로고 스니커즈 1백만원대 모두 **한디**, (오른쪽) 벨벳 소재 버건디 컬러 피무트 라펠 카트린 재킷, 실크 소재 라벤더 컬러 터틀넥 롱, 트윌 소재 피플 컬러 팬츠, 블랙 로퍼 모두 가격 미정 **블루포드**.



(왼쪽) 크림 컬러 코트 가격 미정, 보이 들 코트 저지 블랙 컬러 티셔츠 99만원, 시몬 소재의 실버 컬러 터틀넥 롱 가격 미정, 데님 소재의 팬츠 가격 미정, 실버 컬러 쉘시 부츠 가격 미정 **셀만느 옴므 by 에디 슬라만**, (가운데) 베이 지 코트 캔버스 피무트 라펠 재킷, 블루 코트 포플린 오버사이즈 셔츠, 베이 지 코트 캔버스 카고 팬츠, 크림 스무스 카프 스킨 & 그레이지 누백 스니커즈, 오프 화이트 캐시미어 랩 니트 삭스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맨**, (오른쪽) 패카우트 디테일을 더한 화이트 컬러 스타디움 재킷, 화이트 컬러 화이트 팬츠, 레더 소재 화이트 컬러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왼쪽) 블랙 컬러 헤링본 패턴 재킷 가격 미정, 블랙 컬러 헤링본 패턴 팬츠 가격 미정, 블랙 컬러 러그리스업 부츠 2백만원 미만 모두 **보타가 베네타**. (오른쪽) 그린 컬러 헤링본 패턴 코트 가격 미정, 그린 컬러 헤링본 패턴 재킷 가격 미정, 그린 컬러 헤링본 패턴 팬츠 가격 미정, 보틀 그린 컬러 러그리스업 부츠 2백만원 미만 모두 **보타가 베네타**.



(왼쪽) 화녹색 더블 블루중 패딩 재킷, 자지 소재의 브라운 컬러 팬츠, 카프스킨 소재의 블랙 컬러 헬시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램스킨 소재의 블랙 & 민트 컬러 사이딩 재킷, 브라운 & 블루 컬러 자카드 울오버틀, 화녹색 테크니컬 팬츠, 카프스킨 소재의 블랙 컬러 헬시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Dima Abdullin, Caio Beloved,
Honza Stiborek, Salih Topcuoglu,
Alex Valcan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일렉신더 맥퀸 02-6905-3472
프라다 02-3218-5320
셀윈드 옴므 by 에디 슬리먼 02-549-6631
디올 맨 02-3480-0104
루이 비통 02-3432-1854
미우 미우 02-3218-5331
버버리 080-700-8800
토즈 02-3438-6008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켄디 02-514-0652
뎀포드 02-6905-3534
에르메스 02-542-6622
발렌티노, 발렌티노 7미베니 02-2015-4655
생 로랑 02-549-5741
자캥시 02-3479-6137

Color me

특독 튀는 색깔로 시선을 끄는 빅 패션 하우스의 2022 F/W 시즌 컬러풀 핸드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원스로운 스카이 블루 컬러의 새틴 소재 미우 완 더 백, 아이코닉한 마테리제 모티브로 장식했다. 2백40만 원대 **미우 미우**. 문의 02-541-7443, 세르펜티 포에버 백 시 체인 스몰 크로스 백, 신형 시트린 옐로 컬러의 나미 레 더 소재로, 불가리 워치에서 영감을 얻은 켈스톤 장식의 벨 마리 모양 클로저를 닮았다. 3백90만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강렬한 핑크 컬러의 윈 스타드 미니 톱 핸들 백, 탈착 가능한 별도의 스트랩을 갖춰 다채로운 방식으로 연출 가능하다. 3백70만원 **발렌티노 가리바니**. 문의 02-543-5125, 페브리코로 장식적 효과를 낸 투톤 디자인의 비브 스크 오가자 주얼 미니 백, 크리스탈 비를 장식으로 화려함에 방점을 찍었다.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하우스를 상징하는 모노그램 패턴을 장식의 디오 오렌지 컬러 미니 G-호보 백 2백만원대 **지젤시**. 문의 02-546-2790, 이번 시즌 하우스가 제안하는 키 컬러 중 하나인 에이드 그린 색상의 미니 주얼 사벨 백, 정교한 플라즈마 디테일의 렘 스킨 나미 가죽 소재로, 시그처인 포 링 핸들이 돋보인다. 2백95만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905-3472 객원 에디터 **이혜미**



Wonder Shoes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뽀족코가 돌아왔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알코가 뽀족하며 발목의 리본 디테일이 멋스러운 페이퍼트 레더 소재 스트랩 슈즈 1백36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금속 소재 V 로고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발목 스트랩이 사들 시로잡는다. 1백7만원 **발렌티노 가리바니**. 문의 02-2015-4653

슬림백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신고 벗기 편하며 브랜드 시그니처인 알코 디테일이 돋보이는 슈즈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6-9628, chanel.com

클래식 펌프스 디자인을 신선했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비스듬한 힐과 알코의 로고가 포인트를 주는 브리사드 레더 소재의 슈즈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218-5320

엔트라이트 컬러의 100% 비니트 송이재귀족 소재 포인티드 토 실루엣 펌프스 1백20만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905-3472

스텔스 소재로 블랙 컬러에 은은한 반짝임을 주어 매력에 대한 스트랩 슈즈 가격 미정 **발렌티노**. 문의 02-549-6631 에디터 **성정민**

New Life, New Style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질릴 틈 없는, 즐길 거리, 볼거리 가득한 복합 문화 공간.



아스티에 드 빌라르

예술적 영감을 바탕으로 이트부터 그릇 같은 식기, 화병 같은 오브제에 캔들이나 인센스 같은 향 아이템까지.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제품을 만들어가는 프랑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스티에 드 빌라르가 세계 최초 서울에 플래그십 스토어 겸 카페를 오픈했다. 총 5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졌으며, 1~2층에는 아스티에 드 빌라르의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가 마련되어 있고 3~4층에서는 다양한 이트 작품과 아스티에 드 빌라르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소장품을 전시한다.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5층 카페에서는 아스티에 드 빌라르 샵에 담겨 나온 에스프레소 메뉴부터 와인, 칵테일과 간단한 스낵,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한남동의 작은 골목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탁 트인 테라스와 인테리어는 파리를 서울로 그대로 옮겨온 듯한 감성을 전한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아사동로49길 13 문의 02-793-7099

1 파리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루프탑 테라스, 2 아스티에 드 빌라르 와인, 3 아스티에 드 빌라르의 플레이팅과 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층 공간, 4 파리풍의 감성을 그대로 녹여낸 아스티에 드 빌라르 카페 인테리어.



LCDC SEOUL

LE CONTE DES CONTE'S의 앞 글자를 따온 이름으로, 사인 잠바티스타 바실레(Giambattista Basile)가 수집한 최초의 이야기 모음집에서 유래했다. 여러 단편소설이 모여 하나의 단편집을 이루듯 자화타의 이야기를 지닌 크고 작은 브랜드가 모여 있는 공간 플랫폼이다. 성수동의 골목길을 지나 LCDC 서울 스퀘어 안쪽으로 들어서면 넓고 오래된 크고 작은 공간이 즐비한 거리 풍경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다. 중앙 광장 역할을 하는 스퀘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팝업 공간 DDMMYY와 카페 에페메라(Ephemer), 음악 작업이 가능한 뮤직 룸이 자리하며, 나선형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패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숍인 르콩트 드콩트(LE CONTE DES CONTE'S)를 만날 수 있다. 3층에는 1개의 팝업 공간이 더 마련되어 있으며, 복도를 따라 6개의 다양한 브랜드가 각자의 공간에서 개성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 마지막 꼭대기 층 루프톱에는 바 포스트스크립트(Bar Postscript)가 자리해 성수동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술 한잔 즐길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7길 10 문의 02-3409-5975

1 1층에 위치한 카페 에페메라의 모습, 2 건물 외벽에 자리한 LED 조명의 LCDC 서울 로고 가시성을 사로잡는다, 3 LCDC 서울의 루프탑, 4 꼭대기 층에 위치한 바 포스트스크립트.



딤틱 가로수길 스토어

올 초 프랑스 감성 나치 퍼퓸 브랜드 딤틱에서 국내 최초로 글로벌 최대 규모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로수길에 오픈했다.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딤틱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1층부터 2층까지 거실, 주방, 다이닝과 욕실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직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캔들이나 커블러리, 인테리어 오브제 등 인스타그램 캠퍼션을 소장할 수 있고, 향수 인그레이빙, 메시지 리본, 캔들 메시지 캡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2층에서는 다양한 수진품을 직접 감상하고 소파에 앉아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2층 거실에서는 딤틱 관련 다양한 클래스나 전시도 열 예정이다. 쇼핑과 전시, 체험이 있는 가로수길의 랜드마크이자 딤틱 하우스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임에 틀림없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가로수길 15 문의 02-3446-7494~5



1 딤틱 가로수길 스토어 외관, 2 주방 콘셉트로 꾸민 2층 공간, 3 다양한 클래스와 전시가 이뤄질 2층 거실, 4 딤틱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1층 스토어.



다이브인 성수

영한 아티스트들의 정신이 녹아든 연남동을 시작으로 인사동에 이어 열다 전 성수동까지 오픈한 율인형 이트 전시 공간 다이브인. 다양한 아티스트의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클래스 및 마켓까지 열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아트 숍과 갤러리 카페가 한 장소에 경계 없이 어우러져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며, 아티스틱한 분위기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 다이브인 성수는 성수동을 상징하는 붉은색 벽에서 출발해 영화 (이선) 속 분위기를 다 이브인만의 색감과 오브제로 풀어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성수동의 유명 로스타리 카페인 커피넬로스타스 원두를 기반으로 한 담백한 커피 메뉴와 시즌 음료를 제공한다.

위치 서울시 성동구 아사동로13길 31 문의 010-8496-8452

1 중앙에 전시 공간을 둔 중앙에는 카페와 이트 위치인 다이브인 성수의 독특한 내부 풍경, 2 아트 숍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굿즈, 3 곳곳에 독특한 오브제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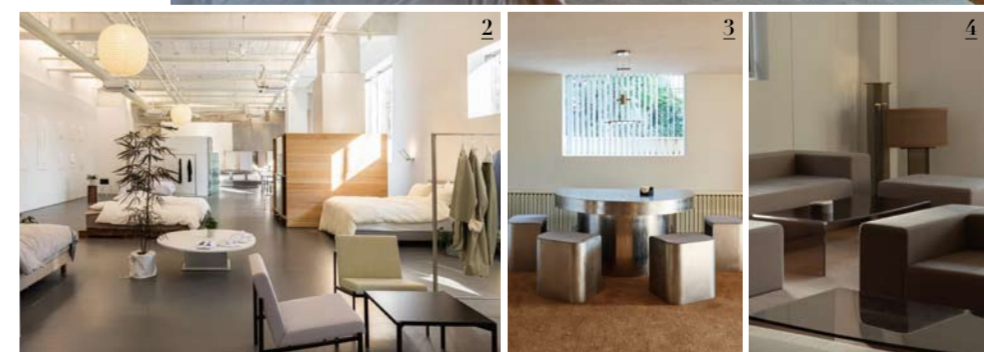


컴포트

남산 소월길과 후암동 사이 조용한 골목에 유니크한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섰다. 바로 새로운 영감과 문화를 위한 걸쳐 플랫폼이라는 콘셉트로 론칭한 컴포트다. 1층부터 5층 옥상까지 감각적이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콤팩트 채운 복합 문화 공간. 1층에는 의류부터 오브제까지 다채로운 아이템을 판매하는 편집숍이 자리하며, 2층에는 다채로운 전시가 이뤄질 전시 공간, 그라운드 바이 콤포트가 자리한다. 또 4층에는 커피와 디저트 메뉴로 가득 채운 감각적인 카페 콤포트, 5층에는 후암동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테라스가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컴포트 스토어에서는 배웅 키링과 트라이서클 백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콤포트 자체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두남비우로60길 45 문의 070-7607-0624

1 그래픽이 아트로 장식한 콤포트 입구, 2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시선을 사로잡는 콤포트의 외관, 3 콤포트 자체 아이템과 높은 의류, 소품 등을 모아 판매하는 1층 편집숍.



식스티세컨즈 라운지

삼의 가치를 전하는 매트리스 브랜드 식스티세컨즈에서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이곳에서는 식스티세컨즈의 매트리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자, 파스타, 인대, 커피, 티, 와인, 배개 등 리빙용품을 판매하는 편집숍이 있어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인왕산 잔치림 푸인 2층에서는 1시간 동안 전원의 개입 없이 원하는 만큼 매트리스나 침구를 체험하며 쉬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도산정을 오픈했는데, 약 330㎡(1백 평) 규모의 식스티세컨즈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는 다채로운 매트리스와 침구 및 소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상점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오픈 후 스튜디오 오우경과 합작해 'Lulaby' 시리즈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전시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부강적으로 타 브랜드와의 협업이나 전시를 기획할 예정이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정문로 29(윤인정 문의 02-2076-6060 / 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17(도산정 문의 02-6958-6060)

1 식스티세컨즈 라운지 2층 공간으로 침구 구매를 감성적으로 이끄는 매트리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2 식스티세컨즈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3 식스티세컨즈 라운지 각자의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잘 보여주는 휴식 공간, 4 식스티세컨즈 라운지 로비.



아파트먼트풀

셀렉션이 좋기로 유명한 빈티지 가구 소품, 원오다리맨션에서 성수동에도 다른 공간 아파트먼트풀을 오픈했다. 빈티지 가구 선순환을 위한 전시 겸 리셀 서브스, 마켓, 스테이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위한 공간으로, 오픈하기마자 첫 번째 전시 (Second Cycle)을 열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파트먼트풀이 소장한 빈티지 가구 컬렉션을 매개로 '사물의 또 다른 순환을 선보였다.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장 프루베(Jean Prouvé), 알버트 알토(Alvar Aalto), 멤피스 그룹(Memphis Group)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의 가구를 한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훌륭한 전시, 앞으로는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빈티지 가구를 취급해온 원오다리맨션에 이어 오래된 사물의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이티스트 전시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티스트

위치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106 문의 02-462-0525

1 독특한 나선형 계단으로 많은 이들의 포토 스팟이 된 공간, 2 첫 번째 전시 (Second Cycle), 3 남다른 셀렉션을 자랑하는 빈티지 가구들, 4 아파트먼트풀의 외관.



Bare Essentials

샤워 시간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프리미엄 샤워 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에르메스 온 자른델 수르 라리군 비디 샤워 젤 에르메스 퍼퐁의 대표 제품인 자른델 수르 라리군 향을 담은 샤워 젤로, 투명한 물의 도스인 배너의 비밀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시원하고 은은한 향을 전하며, 노폐물을 부드럽게 세정한다. 200ml 6만9천원, 문의 02-310-5174

르 리브 샤워 젤 바질 싱그러운 신선함을 선사해줄 바질 향을 담은 샤워 젤. 풍성하고 촉촉한 거품이 기본 좋고 상쾌한 세정을 돕고, 샤워 후에도 맨드는 지안 향으로 하루 종일 은은한 바질 향을 즐길 수 있다. 500ml 6만4천원, 문의 02-6971-3204

디올 미스 디올 샤워 젤 피부에 영양감을 선사하는 로즈 오일을 함유해 샤워 후 신선한 기분과 동시에 풍부한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시그니처 향수인 미스 디올의 향을 더욱 섬세하게 녹여 샤워 후 온몸 구석구석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경험할 수 있다. 200ml 6만9천원, 문의 080-342-9500

오피신 유니버셀 웰리 월드 시뮬 바디 워시 샤워 후에도 건조함 없이 풍부한 수분감을 선사하는 오일 텍스처의 바디 워시로, 고르고 미세한 거품이 피부 속 노폐물뿐 아니라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주며, 중성적인 느낌의 고급스러운 향이 기본 좋은 상쾌함을 선사한다. 190ml 7만9천원, 문의 1544-5114

팬탈리곤스 퀘르쿠스 바디 앤 핸드 워시 럭셔리 호텔의 아메니티로 자주 등장하는 팬탈리곤스의 바디 워시를 더 큰 용량으로 욕실에서 즐길 수 있다. 마일드한 거품이 나는 젤 타입 텍스처로 피부 분연의 보습력은 남기고 부드러운 클렌징을 도와 윤기 나는 바디 피부로 가꿔준다. 시트러스한 바질 향에 아우라진 부드러운 재스민과 은방울꽃 향이 매력적이다. 300ml 6만6천원, 문의 080-363-5454

산티마리아 노벨라 퍼넬레 1221 에디션 바디 클렌징 비노수유마 바디 워시 미치 퍼넬레에 여행은 듯한 향으로 구성된 바디 클렌징 중 하나이며, 달콤한 찬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향

이 특징이다. 풍부하고 섬세한 거품이 알맞은 세정을 돕고,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고급스러우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유리 소재 패키지를 갖췄다. 250ml 8만2천원, 문의 1644-4490

룩사팡 2022 민트 바베나 샤워 젤 리미티드 기존 스테디셀러인 바베나 라인에 상큼한 민트를 더해 더욱 짜릿하고 청량한 사용감을 선사하는 샤워 젤. 미세 알갱이가 함유된 투명한 워터 텍스처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일리 각질 케어까지 가능하다. 프로방스산 민트와 바베나로 더운 여름 열기와 땀을 한방에 날려줄 필수템. 250ml 2만9천원, 문의 02-2054-0600

샤넬 N5 샤워 젤 독특함이 느껴지는 크리미한 포밍 텍스처가 피부를 벨벳처럼 감싸는 묘한 감각적 리추얼을 제공한다. 샤워 후 샤넬 N5의 은은한 시그니처 향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으며, 트루스트 & 슬라이드 캡을 장착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200ml 6만8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에디터 **성정민**



이슈노트 편집

Extreme Rich

피부의 노화 징후를 개선하고 확실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프레스티지 크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클레드노 보메 볼류미이징 크림 수프림 탄력 저하와 피로감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시한 노화 증상 완화 크림. 핵심 성분인 쿠사닌 폴리페이드와 식물 추출물이 높아진 피부를 잡아주고 피로감을 메우고 부드럽게 가꿔준다. 50ml 46만5천원, 문의 080-564-7700

스위스파렉션 셀룰라 퍼펙트 리프트 크림 특별한 셀룰라 액티브 RISA® 성분으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보인다. 시아바타와 메도폼 시드 오일, 칸올렌드 빛 오일이 수분을 채워주어 피부 조직을 강화하며, 볼륨감과 윤곽을 아름답게 되살려준다. 50ml 76만5천원, 문의 1644-4490

뮌이네 압솔리프트 크림 풍부한 토코페롤과 볼보화지방산이 즉각적으로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퍼 빌리는 코팅도 텍스처가 일품이다. 메도폼 시드 오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항산화에 도움을 주며, 자외선과 스펀을 함유해 윤기 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50ml 48만원, 문의 02-310-5025

라프라피 푸어 골드 리치니스 뉴타일 밤 풍부한 영양 성분과 부드러운 우연사도 쏘뽀한 제형으로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충족하게 채워주는 마시지 스킨 포함 크림. 밤사이 에너지를 보충해 피부를 단단하고 건강하게 해주며, 아침이 되면 은은하게 자아는 생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60ml 1만292만4천원, 문의 02-511-6626

디올 프라노스티지 리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 진귀한 야생 장미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인 로사세피이드 콤플렉스의 강력한 에너지를 담아 피부 노화의 흔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피부 분연의 기능과 컨디션을 되찾아주는 프레스티지 크림 50ml 55만원, 문의 080-342-9500

샤넬 N1 DE CHANEL 레드 캐멜리아 크림 천연 유래 자수 95%와 레드 캐멜리아 추출물, 7캐멜리아 오일 등 70% 캐멜리아 추출 성분을 함유해 순하게 작용하며, 밀어낸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준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는 순간적으로 주름을 매끄럽게 케어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며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50g 14만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결빙 오기도 양귀비열 약생세셀 캄블리트 케어 더 크림 & 리프라이프 크림 15년 이상 산보온 지생력을 갖춘 오기도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한 안티에이징 성분들 담아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한다. 생체리튬서 부드러운 텍스처가 피부를 편안하게 하며, 강력한 리추얼 효과를 선사한다. 50ml 66만원, 문의 080-343-9500 에디터 **성정민**

이슈노트 편집

editor's Pick

환절기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한 이달의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이피 루주 췌아레 522 비 췌아레** 낚사기 선선한 요즘 선명한 립스틱을 바르고 싶은 마음이 저무는 건다. 그래서 선명한 루주 췌아레. 하이 퍼포먼트 테크놀로지로 립스틱 발생은 더욱 선명하게 크크히하게 높아들어 부드럽게 발린다. 세이-메트 제형 차고는 꽤 촉촉해 장시간 입술이 편안했다. 3g 9822원. 문의 02-310-5025. *by 에디터 신영임*

다퓌르 오르메옹 솔라드 파퓌르 푸리는 향수를 취하려는 것이 불편하거나 공기정소에서 분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면 좋다. 세로가 5cm 남짓한 작은 사이즈라 미니 백에도 쉽게 들어지며, 베스트셀러인 생애폴랑 34번가, 도 스킨, 오 기뻐할, 오로즈, 콜보르 단로, 필로사코스, 오르메옹 총 7종류의 향 중 선택할 수 있다. 리필도 판매한다. 3g 8만8천원, 리필 3g X 2 5만4천원. 문의 02-3446-7494. *by 에디터 장미윤*

닥터 자르트 배리어 뷰티 밤 01 라이트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베이스 케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뷰티 밤을 찾다 만난 제품. 피부 보호를 매끄럽게 케어해주면서 가볍게 밀착되는 게 마음에 들었다. 3중 바터인 B 성분에 허탈부노스까지 함유해 피부 속을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색상은 01 라이트 · 02 미디엄, 두 가지. 30ml 395천원. 문의 1544-5453. *by 에디터 신영임*

아메 엔루트 클라리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 최근 많이 출시하는 리오인 칸디다네 제품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을 듯하다. 너무 오일링하지도 않고 끈적이지도 않는 쫀쫀한 크림 제형으로 잦은 머리에 발라도 몽침 없이 고르게 발리는 느낌. 쓰면 두피가 열개도 손상 없이 머리칼만을 보호한다. 드라이 후 미끈 뽀얗게 발라도 오일링하지 않아 만족스럽다. 100ml 392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신영임*

살트 탈바리 뷰티플 스킨 레전드 컨실러 뭉침 걱정 없는 가벼운 스킨케어링 포플라가 피부에 밀착된 있게 표피층다다나, 정말 그렇다. 건조 컨실러의 제형이 무척 부드러워 들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현상도 제로. 이 컨실러 하나로 소량만 사용해도 얼굴 전체에 발라드나 화장한 듯 안 한 듯 내추얼렌스도 잡 도와 착한 피부 톤을 다 가져해준다. 7.2g 425천원. 문의 1644-6862. *by 에디터 신영임*

엘랑 오이드 임페리얼 글로블러 컨센트레이티 아이 크림 이 제품 라인외 크림을 사용해도 잔이 있는데, 다음 날 눈 밑도 좋아진 피부 컨디션에 환호한 적이 있다. 아이 크림 역시 가 가벼워 만하다. 결막염의 확산적인 오이드 추출물과 테크놀로지 바르고 잔 뒤 다음 날 바로 눈가가 시원해진 듯한 느낌. 자고 일어나면 눈 부어 있던 눈기도 평평해져 기 좋게 눈을 맞출 수 있었다. 20ml 4425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신영임*

디올 뷰티 자드르 파퓌르 도 매우 선수압한 볼을 살루었는 다르게 백묵관과 재스민, 로즈, 그리고 싱그러운 허나들기 이루어져 신선한 물과 꽃향기를 낸다. 워터 베이스 포플라가 미스트처럼 분사되어 손목이나 컷볼 등에서 흐르지 않고 즉시 마르는데는 것도 장점. 한 편이 시 같은 사랑작인 꽃향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100ml 24만8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장미윤*

샹젤리 쿠기 아이 리프트 푸마로 익숙한 쿠기의 오묘하고 깊은 눈매를 담은 아이 섀도 팔레트. 브라운과 그레이 컬러가 이루어져 그윽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고, 프렌치 스타일링 제형이다. 수공업 일부는 옐로톤 국립공원의 샹젤리와 열종 위기 동물을 위해 사용한다.니 비를 매다 더 맛있는 섀도다. 2g 10만9천원. 문의 070-4370-7511. *by 에디터 신영임*

발몽 브이 펴 아이 아주 끈적끈적한 젤 제형이 깊숙이 침투해 피부 코어의 힘을 강화하는 진중 탄력 안티에이징 아이 세럼. 피부에 스며들 때까지 손가락으로 두드려 10일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사용했다.니 는 주변이 확실히 밝아진 듯한 느낌. 주름과 탄력 개선 효과는 좀 더 사용해보아야 할 듯하다. 15ml 32만원. 문의 070-4352-5203. *by 에디터 장미윤*

올리초이스 라지니스트 인센티브 레노베 세럼 요즘 따뜻한 장사인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 참나, 피부에 생체스킨을 해줄 이 제품을 만났다. 주름 개선 효과를 알리진 레노베 성분을 함유해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 쫀쫀한 제형으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느낌이 리프트 효과가 있다. 30ml 5만7천원. 문의 1661-6656. *by 에디터 신영임*

바니스뉴욕 뷰티 글로블러 라이트 쉐 크림 심하게 끈적이는 젤 타입의 크림은 선호하지 않는 편. 하지만 이 제품은 라이트한 제형으로 피부에 금방 흡수되어 밝은 향이 없었다. 가을, 겨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건조할 수 있으니 다른 크림이나 수분 세럼을 듬뿍 바른 뒤 메이크업 전 수분 프리마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이 제품을 바른 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니 피부 속부터 활력이 촉촉하게 차오르는 듯 표현해주는 것이 놀라웠다. 50ml 13만9천원. 문의 1644-3456. *by 에디터 신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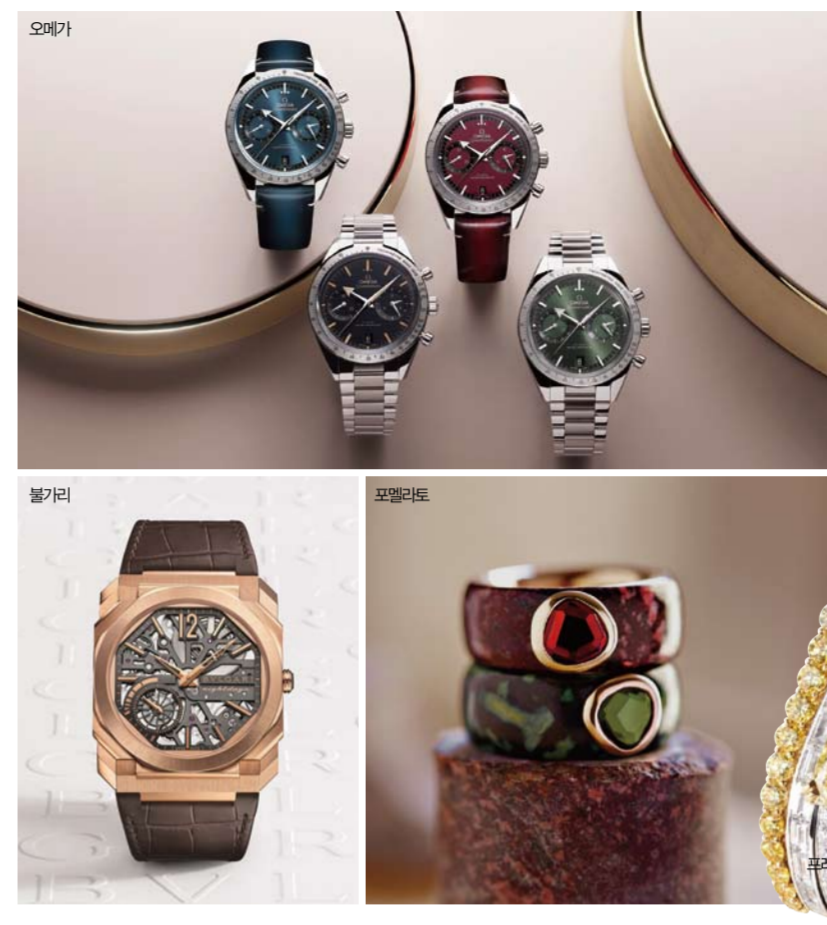
메이건업에어 트윈스트 & 라이트 루스 파우더 02 미디엄 색상은 예뻐도 재밌게 재밌게 가지는 한 파우더를 만났다. 원형형 아광부분을 둘러싼 세 가지 색상의 파우더가 다 재밌게 섞인다. 평소 자연스런 피부 유폴감을 잡아주고 피부에 끈적이지 않는 광채 파우더를 선호하는 편이라 딱 맞는 아이템이다. 색상은 콜론, 쉐 톤에 따라 최첨의 세 가지 조합으로 01, 라이트와 02, 미디엄, 두 가지. 8g 9만2천원. 문의 080-514-8942. *by 에디터 신영임*

모로칸오일 핸드 워시 모로칸오일에서 최호로 선별한 핸드 워시. 뛰어난 세정력으로 손을 깨끗하게 세정하는 동시에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줘 피부 속 수분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손을 씻고 나면 심하게 말라지 않게 핸드크림을 발라도 되는 에디터도 인정할 촉촉한 마무리감이 매력적이다. 360ml 2만9천원. 문의 1666-5125. *by 에디터 장미윤*



* 장미윤(02)4352-5203, 신영임(02)310-5025, 장미윤(02)4251-1661

JEWEL & WATCH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57 워치메이커 브랜드 오메가에서 12.99mm로 슬림해진 버전의 스피드마스터 57을 선보인다. 정교한 베젤과 수동 와인드 무브먼트가 장착된 스피드마스터 57은 스틸과 티타늄 브레이슬릿 또는 다이얼과 같은 컬러의 레더 스트랩으로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6905-3301

불가리 제네바 워치 데이 2022 이태리언 럭셔리 브랜드 불가리가 제네바 워치 데이 2022에 참여해 화려한 시계 품 라인을 선보인다. 이번 워치 데이에서 워치메이킹 예술의 정진을 담은 옥토크 컬렉션 탄생 10주년을 기념해 프레스 메탈을 입은 로즈 골드와 옐로 골드의 옥토크 파니시 모골드를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워치함을 품은 블랙색상의 세르펜티 세투토리, 세르펜티 스피가 세타리,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포인트인 세투토리 투르비용 등 다채로운 컬렉션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2-2056-0170

프레드 무슈 프레드 아너 라이트 바다를 향한 열정으로 끝없이 도전해온 프레드 창립자 프레드 시무엘. 그의 특별한 인생과 빛나는 오라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하이주얼리 컬렉션, 무슈 프레드 아너 라이트를 공개한다. 이번 컬렉션은 프레드의 새로운 스톤 컷인 프레드 하버로 컷을 적용해 창립자의 인생에서 강함한 용기, 도전, 인내심, 사랑을 표현했다. 문의 02-514-3721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컬렉션 출시 1백39년의 오라 전통을 지닌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브라이틀링에서 내비타이머 컬렉션 출시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내비타이머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에서 18K 레드 골드 베젤을 가미한 내비타이머 골드 저용은 12시 방향 날개 로고 및 동향대 크리스탈 글라스 디자인 오리지널 내비타이머의 특징을 담아 큰 주목을 받았다. 내비타이머 컬렉션은 아이스 블루 · 그린 · 코퍼 등 다채로운 디자인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792-4371

포플라도 이코니카 베네치아 링 이탈리아 패션 파인주얼리 브랜드 포플라도에서 베네치아 산 마르코 성당의 사도석 독서대를 기념해 이코니카 베네치아 링을 선보인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이코니카 베네치아 링은 로즈 골드 에 레드, 그린 포피리를 시트한 22K 버전으로, 브랜드의 기술력과 베네치아의 예술적 전통을 디자인에 담았다. 문의 02-3143-9486

SHOWROOM

리프레시 스킨 케어 컬렉션 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리프레시에서 간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기뻐할 수 있는 스킨 케어 컬렉션을 제공한다. 케어 성분 이 담긴 스킨 케어 리프트 리프트 · 렉스 크림 · 렉스 아이 크림 · 아이 리프트 · 하모니 렉스트레까지 총 5가지 스킨케어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농축된 케어 성분을 담아 탄력 있는 광채 피부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2-511-6626

조지앙 로르 카피로르 출시 프랑스 자연주의 스킨 케어 브랜드 조지앙 로르에서 트리트먼트가 가능한 두피 에센셜 카피로르(Capilaure)를 선보인다. 카피로르는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에센셜을 담은 두피 에센셜로 탄력, 트러블, 피지 조절 등 두피 컨디션에 따라 카피로르 아베 · 아베 · 데페 · 아페프뜨, 총 4가지로 구성된 맞춤형 트리트먼트로 사용 가능하다. 문의 02-556-0563

에스티 로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파운데이션 SPF 20/PA+++ 에스티 로더에서 하루 중 일 걸림 없이 완벽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드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파운데이션을 리뉴얼 출시한다. 기존 제품에 고분자·자분

두미 테그라 라이트 컬렉션 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두미가 테그라 라이트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프란트 포켓함과 노프린트 포켓형, 2가지 스타일로 여행자의 취향과 여정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경주용 자동차 소재인 테그라 스틸(Tegris)를 활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인타내셔널 캐러밴 제품에는 USB C 타입 충전 포트도 편리성을 더했다. 문의 02-539-8160

리프레시 스킨 케어 컬렉션 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리프레시에서 간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기뻐할 수 있는 스킨 케어 컬렉션을 제공한다. 케어 성분 이 담긴 스킨 케어 리프트 리프트 · 렉스 크림 · 렉스 아이 크림 · 아이 리프트 · 하모니 렉스트레까지 총 5가지 스킨케어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농축된 케어 성분을 담아 탄력 있는 광채 피부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2-511-6626

조지앙 로르 카피로르 출시 프랑스 자연주의 스킨 케어 브랜드 조지앙 로르에서 트리트먼트가 가능한 두피 에센셜 카피로르(Capilaure)를 선보인다. 카피로르는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에센셜을 담은 두피 에센셜로 탄력, 트러블, 피지 조절 등 두피 컨디션에 따라 카피로르 아베 · 아베 · 데페 · 아페프뜨, 총 4가지로 구성된 맞춤형 트리트먼트로 사용 가능하다. 문의 02-556-0563

에스티 로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파운데이션 SPF 20/PA+++ 에스티 로더에서 하루 중 일 걸림 없이 완벽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드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파운데이션을 리뉴얼 출시한다. 기존 제품에 고분자·자분

발몽 브이 펴 3중 출시 1백16년 전통의 프레스테지 스위스 코즈메틱 브랜드 발몽에서 브이 펴(V-FIRM) 3종을 출시한다. 브이 펴를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주는 펩타이드 카테일 성분이 들어 있어 화사하고 탄탄한 피부를 만든다. 발몽의 브이 펴 3종은 전국 백화점 발몽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70-4352-5203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파운데이션을 리뉴얼 출시한다. 기존 제품에 고분자·자분

리프레시 리프레시 스킨 케어 컬렉션

조지앙 로르 조지앙 로르 카피로르 출시

파비아나 필리피 파비아나 필리피 2022 F/W 자수 카디건

호간 호간 'H600' 첼시 부츠

호간 'H600' 첼시 부츠 기능성과 우아함을 담은 프러미트 스카츠 브랜드 호간에서 'H600' 첼시 부츠를 출시한다. 가죽 소재의 첼시 부츠 디자인에 메모리폼 인창과 초경량 아웃솔을 더해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H600 첼시 부츠로 데일리 룩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보자. 문의 02-3479-1593

파비아나 필리피 2022 F/W 자수 카디건 파비아나 필리피에서 1950년대 콘크리트 건축 미학인 브루타лизм에 영감을 받은 이번 자수 카디건을 선보인다. 화려한 레이스 스타일에 세련된 장식을 더해 기하학적인 아름다움 속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부드러운 모헤어를 사용해 가볍고 따뜻하며 허리 부분에 핏을 줄 수 있어 다양한 실루엣으로 분위기를 있는 기를 록을 완성한다. 문의 02-6960-0843



LOUIS VUITTON